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Parents' Career Support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김 유 리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지도교수 정 철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김 유 리

김유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위 원 장      정    진    철



부위원장      정    철    영



위      원      최    수    정





## 국 문 초 록

#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년

김 유 리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변인이 성별, 학년, 지역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수행에 있어 선행연구의 조사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전문가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목표 표집 수 420부 중 불성실응답 설문 45부를 제외하고 총 375부의 설문을 활용하여 최종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Window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중다회귀분석 및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변인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개발역량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친구, 학교생활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은 진로개발역량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모의 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이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별로 모 진로정보제공, 학교공부, 학교친구, 자기효능감이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진로지원행동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부모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급에 따라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에 있어 성별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에서의 진로정보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의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

학 번: 2011-21195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5
3. 연구 문제 .....	5
4. 용어의 정의 .....	7
5. 연구의 제한점 .....	7
<b>II. 이론적 배경</b> .....	<b>9</b>
1. 중학생 진로발달 특성 및 실태 .....	9
2. 진로개발역량 .....	12
3. 부모진로지원행동 .....	26
4. 학교적응 .....	33
5. 자기효능감 .....	38
6. 변인 간 관계 .....	43
<b>III. 연구 방법</b> .....	<b>53</b>
1. 연구 모형 .....	53
2. 연구 대상 .....	54
3. 조사 도구 .....	58
4. 자료 수집 .....	64
5. 자료 분석 .....	65



<b>IV. 연구 결과</b> .....	<b>69</b>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	69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 차이 .....	74
3.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	84
4.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88
5. 논의 .....	95
<b>V. 요약, 결론 및 제언</b> .....	<b>105</b>
1. 요약 .....	105
2. 결론 .....	108
3. 제언 .....	110
<b>참고문헌</b> .....	<b>115</b>
<b>부록</b> .....	<b>142</b>
【부록 1】 설문지 .....	142
【부록 2】 조사 도구 수정 .....	153
<b>Abstract</b> .....	<b>163</b>

## 표 차 례

〈표 II-1〉 진로개발역량의 정의 .....	14
〈표 II-2〉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구성 .....	16
〈표 II-3〉 진로결정수준의 정의 종합 .....	19
〈표 II-4〉 부모진로지원행동의 정의 종합 .....	29
〈표 II-5〉 학교적응의 정의 종합 .....	35
〈표 II-6〉 자기효능감의 정의 종합 .....	39
〈표 II-7〉 변인 간의 관계 종합 .....	52
〈표 III-1〉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 수 및 학교 수 현황 .....	55
〈표 III-2〉 연구의 표집 .....	59
〈표 III-3〉 조사 도구 구성 .....	58
〈표 III-4〉 진로개발역량 측정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	60
〈표 III-5〉 부모진로지원행동 측정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	61
〈표 III-6〉 학교적응 측정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	62
〈표 III-7〉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	62
〈표 III-8〉 전문가 집단 구성 현황 .....	64
〈표 III-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65
〈표 III-10〉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 .....	66
〈표 III-11〉 피어슨 상관계수( $r$ )에 대한 상관정도 기준 .....	67
〈표 IV-1〉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관한 기술통계 .....	69
〈표 IV-2〉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에 관한 기술통계 .....	70
〈표 IV-3〉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기술통계 .....	71

<표 IV-4>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기술통계 .....	71
<표 IV-5>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결과 .....	72
<표 IV-6> 연구변인 간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	73
<표 IV-7>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	74
<표 IV-8> 학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	75
<표 IV-9> 지역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	76
<표 IV-10> 성별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차이 .....	77
<표 IV-11> 학년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차이 .....	78
<표 IV-12> 지역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차이 .....	79
<표 IV-13>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	80
<표 IV-14>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	81
<표 IV-15> 지역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	82
<표 IV-16>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82
<표 IV-17>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83
<표 IV-18> 지역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83
<표 IV-19>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회귀분석 결과 .....	84
<표 IV-20>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 하위요인과 진로개발역량의 회귀분석 결과 .....	86
<표 IV-21> 부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89
<표 IV-22> 부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유의수준 .....	90
<표 IV-23> 모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91

<표 IV-24> 모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유의수준 .....	92
<표 IV-25>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93
<표 IV-26>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유의수준 ..	94

## 그림 차례

[그림 Ⅱ-1]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선택모형 .....	26
[그림 Ⅱ-2] 효능기대와 결과기대의 차이 .....	40
[그림 Ⅲ-1] 연구 모형 .....	53
[그림 Ⅲ-2] 표집 과정 .....	57
[그림 Ⅲ-3] 문항 수정 과정 .....	6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식에서 역량 중심으로 전환되고,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서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됨에 따라 진로 교육의 목적은 발달적인 관점에서 진로개발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정철영 외, 2015). 교육부(2012)는 진로 교육의 목표를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세계에서 유연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직업경력을 관리하는 핵심 능력으로서 진로개발역량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로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역량, 진로경로를 탐색하는 역량, 진로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의 발전을 제시함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강조하였다(교육부, 2015). ‘역량’의 관점을 강조하는 진로개발역량은 진로교육의 목표를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단편적인 진로정보 획득이나 일회적인 진로결정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진로발달 또는 진로성숙의 차원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으로 진로와 관련된 학생의 행동,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지향한다(임효신, 2015). 최근 중학교 단계에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추진되고 학교 진로교육에 필요한 환경적 조건들도 갖추어지면서 학교 진로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장현진, 2018).

중학교 시기에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고, 직업적 포부와 기대를 발전시키며(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Turner et al, 2003). 청소년 시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단계는 생애 첫 진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 진학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후기 청소년 및 성인의 경력성공을 가져오는 복잡한 진로개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Turner et al, 2006). 그러나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부모님의 고정적 인식 또는 미디어나 마스크의 영향 등으로 선호직업 편중현상을 보이기도 하며(김봉환, 2009), 진로미결정 상태이거나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한상근 외, 2019)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직업 유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10.7%) 또는 고등학생(19.4%)에 비하여 중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28%)로 희망직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3년 이후로 매년 유사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교 급에 비하여 중학생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진로미결정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시기에 고등학교 진학 등 중요한 진로결정을 위한 현실적인 진로 고민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적성과 흥미, 가치관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따라서 중학교 시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자기 주도적 역량 즉,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는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김경주, 송병국, 2011; 김덕주, 권혁철, 2013; 이형실, 2015; Rogers, Creed, Praskova, 2018; Savickas, 2002; Skorikov & Vondracek, 2011)을 밝히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의 질, 지원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관계적 요소는 청소년의 진로 탐구, 직업적 열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eller, Whiston, 2008).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속의 적절한 기대와 행동이 매우 중요하며(이영미, 2011; 이은정, 2014; 정정란, 2006),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은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모 관련 변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이영광, 양인준, 이승엽, 2019).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은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긍정도와 자아개념 향상에 도움을 주며,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성숙수준을 향상시킨다(Otto, 2000; Pearson & Bieschke, 2001).

청소년의 주된 생활공간으로서 학교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건강과 관련하여 지적인 역량을 발달시키고 유능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며 부모 이외의 다



른 어른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Vieno, Santinello, Pastore, & Perkins, 2007). 학교적응 정도가 높은 학습자들은 학교생활의 규범이나 질서를 잘 지키고 학습태도 및 교사, 친구 사이가 좋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희옥, 문재우, 박재산, 2005). 또한 중학생에게 학교적응은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중요한 예측 변인의 하나로서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학습활동 참여와 학교 규칙 준수의 측면에서 적응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낼 때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진로에 관한 탐색과 이해, 준비의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효연, 2020).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주요 구성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맥락변인을 제시하였다. 맥락변인은 목표와 진로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주거나 효능감과 같은 개인 내적요인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간접영향 줄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근접 맥락변인이 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목표, 행동,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제시하였다(Lent & Brown, 2013).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개인 요소 중 핵심요소로서,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개인 심리적 변인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경, 2001; 이은정, 장운옥, 2008; 최이선, 2008; 홍향연, 유태명, 2008; Constantine, Wallace, & Kindaichi, 2005; Gushue & Whistion, 2006). 또한 맥락변인 중 근접 맥락은 진로선택 시점과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진로 선택 및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지 및 장벽을 의미하며, 부모의 심리적지지 및 진로정보제공을 포함한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대한 학교적응은 중요한 맥락변인이라 할 수 있다.

진로개발역량의 예측요인에 대한 인효연(2020)의 연구는 부모와의 진로선택에 대한 대화, 학교적응을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 차원의 변인은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정윤경, 2005), 부모진로지원행동과 관련한 연구의 상당수가 진로선택이 가시화 되는 시기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선혜연, 2007). 현재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의 제도적 기반하에 다양한 진로관련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역량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도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모의 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의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촉진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의 정도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함과 동시에 이들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에 대한 학생의 인식이 진로개발역량 및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맥락변인으로 가정 차원에서의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차원에서 학교적응에서 어떠한 요인이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로써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부모진로지원행동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학업, 친구, 교사, 생활을 포함한 학교적응의 요소에서 현재의 중학생에게 보다 필요하고 적절한 개입의 요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결과를 중학생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교사를 위한 진로교육연수,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과 진로정보제공에 적용함으로써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가정과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실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의 영향을 구명함과 동시에 이들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 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1-1.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1-2.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1-3.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1-4.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1.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1-1. 중학생의 부모 심리적 지지와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1-2. 중학생의 부모 진로정보제공과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2.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2-1. 중학생의 학교공부와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2-2. 중학생의 학교친구와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2-3. 중학생의 학교교사와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2-4. 중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3.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1.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2.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4. 용어의 정의

### 가. 진로개발역량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자기 주도적 및 창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평생 진로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개척·설계·준비·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적·비인지적 측면의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임효신, 2015). 본 연구에서 진로개발역량은 자기관리,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 진로설계 및 관리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임효신(2015)이 개발한 진로개발역량 측정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 나. 부모진로지원행동

부모진로지원행동은 부모와 자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도우며 부모가 진로 관련 역할 모델자로 아동에게 직업적 정보와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며 문제해결 시 도전을 받아들일 능력을 강화해 주는 것이다(유은선, 2012). 본 연구에서 부모진로지원행동은 서진희, 이제경(2009)의 부모진로지원행동검사에서 심리적 지지, 진로정보제공의 측정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 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개인의 만족과 성장을 위해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는 개인과 학교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송유진, 2015)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은 이규미, 김명식(2008)의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에서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4개 차원의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 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행을 성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 유능감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송윤아, 2010; Eden, 2001).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송윤아(2010)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 5.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학교의 위치에 따라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5개 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중학생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중학교 수업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진로개발역량, 학교적응 등의 일부 조사 도구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중학생 진로발달 특성 및 실태

#### 가. 중학생 진로발달 특성

Ginzberg, Ginsburg, Axelrad, Herma(1951)는 직업선택이 개인의 직업생활과 함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보고 환상기(fantasy stage), 잠정기(tentative stage), 현실기(realistic stage)의 진로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중학생의 시기는 잠정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직업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일에 대한 지식,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에 대해 인식하는 단계이며 직업선택에 대한 결정과 진로선택에 수반되는 책임의식을 깨닫는 시기라 하였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진로선택을 위한 탐색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계획에 변화가 나타난다(김봉환 외, 2010).

Super(1953)는 생애발달에 따른 진로발달 단계와 각 단계별 특징을 제시하였으며, 진로발달은 성장기(growth stage), 탐색기(exploration stage),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유지기(maintenance stage), 쇠퇴기(decline stage)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중학생의 시기는 탐색기에 해당하며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 등의 활동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탐색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와 취업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토론이나 일의 경험 등을 통해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김병숙, 2007a).

Tiedman & O'Hara(1963)는 인지발달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중심으로 발달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따라 진로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분화(differentiation)와 통합(integration)의 과정을 통해 연속적인 과정으로 진로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이 때 개인의 자기인식과 통합된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진로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져(김병숙, 2007a)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Tuckman은 중학생 시기에는 자아인식을 통해 직업군 탐색을 시작하게 되며, 자신의 시각에서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기로서 이를 통해 직업관을 갖기 시작하고 진로결정의 기본요인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탐색하게 된다고 하였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Gottfredson은 Super의 발달 단계와 유사한 발달적 접근을 통합하면서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경로를 설명하였다. 진로발달에서 개인의 자기개념이 진로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제시하며 자기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제거하는 과정인 제한(circumscription)과 개인적 선호와 고용 현실 간의 타협(compromise)의 과정을 강조하는 진로발달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학생 시기는 자신의 흥미, 가치, 능력에 대한 판단과 함께 내적 자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가능한 대안들 중, 어떤 대안이 좋은지 선택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경험한다(이동혁 등, 2017).

Savickas(2002)는 진로구성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에서 청소년기 직업적 정체성의 구성은 진로탐색, 계획, 진로결정 등에 달려있다고 보았으며, 다양한 진로발달 과업과 맞물려 있고 개인적, 맥락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직업적 정체성은 역할 모델로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음으로써 형성되고, 청소년기에 안정화되며 현저하게 발달하게 된다(Danielsen, Lorem, & Kroger, 2000; Kroger, 2007). 청소년 시기에 부모, 상담사, 교사, 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신과 직업에 대하여 정보를 얻고, 여러 가지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탐색하게 됨으로써 진로에 대하여 방향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Porfeli, Lee, & Vondracek, 2013).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학생 시기는 직업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따라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관, 기회 등에 대해 이해하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준비와 탐색을 통하여 현실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시기이다. 또한 진로와 직업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진로선택에 수반되는 책임 의식을 깨닫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부모, 교사, 상담사, 미디어 등 다양한 맥락적 환경이 자신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원천



이 된다.

## 나. 중학생 진로발달 실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한상근 외, 2019)를 통하여 중학생의 진로교육 현황과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 관련 정보 주요 획득 경로에 대한 문항에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학부모, 가족(39.3%) 커리어넷(진로정보망)(36.8%), 담임교사(36.1%)의 3가지 경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부모님과 가족, 교사로부터 진로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희망 직업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한 문항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부모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학생들은 가까운 어른으로부터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며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부모, 교사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나의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꿈)’에 대하여 부모님과 거의 매일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생의 경우 27.7%로, 본인의 흥미와 적성, 꿈에 대해 매일 부모님과 대화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26.8%가 ‘학교 및 학과 선택’과 관련하여 부모님과 매일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하여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대화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진로교육 이외에 개인적으로 또는 부모님 지원으로 외부기관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활동들’인 외부 진로활동을 ‘진로심리검사받기’, ‘진로체험하기’, ‘진로상담받기’로 구분하여 참여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3가지 영역 모두에서 중학생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시기에 학생들은 부모님과의 대화, 외부 진로활동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87.2%, 중학생은 71.9%, 고등학생은 79.5%가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 때 희망 직업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 중학생 때 그 비율이 약 15.3%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을 때 희망 직업이 있는 비율은 매년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다음 고등학생, 중학생 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최근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중학생 시기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하며, 진로미결정 상태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부모와 교사로부터 진로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 진로교육 경험 뿐 아니라 부모와의 대화, 외부 진로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를 통한 가까운 지지체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 또는 고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로 진로미결정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진학 등 중요한 진로결정을 위한 현실적인 진로 고민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2. 진로개발역량

### 가. 개념

역량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행동주의적 접근에서 시작했으며 우수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서 동기(Motive), 특질(Trait), 자아개념(Self 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등과 같은 특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Spencer & Spencer, 1993). 최근 역량의 개념이 직업 생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의 개념을 넘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남수정, 2011)됨에 따라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진로역량(Career Competencies) 혹은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의 개념이 새롭게 제시되었다(조영아, 정철영, 2013). 진로개발역량은 생애적인 관점

에서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청소년들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질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진성희, 성은모, 2017). 또한 진로개발역량은 그간의 진로교육에서 목표로 하던 학생의 진로발달, 진로성숙의 차원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임효신, 2015).

진로개발역량은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 가능할 뿐 아니라 관찰과 측정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진로개발역량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역량이 아닌 사회 환경, 교육적인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은 교과 속에서 진로개발역량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도할 때 그 효과가 높아지므로,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개발역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지연 외, 2009). 진로교육에서 진로개발역량의 강조는 단편적인 정보의 획득과 일회성 진로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과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통해 향후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진로개발의 상황에서 적응 가능한 자기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가 있다(임언, 2008). 진로개발역량의 개념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이를 종합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 -1〉 진로개발역량의 정의

연구자	정의
이지현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에 대한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가치와 성향</li> </ul>
최동선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경험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기주도적인 활동</li> </ul>
임언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이 진로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가치와 성향을 포괄</li> </ul>
이지연 외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각자의 전반적인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인생과업을 성공적으로 계획, 준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개인적 자질</li> </ul>
남수정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성향</li> </ul>
교육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품성과 태도를 아우르는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능력으로, 기존의 직업이나 일자리를 찾아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을 디자인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와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li> </ul>
류제운 이유경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개발의 다양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 직업세계 이해와 탐색, 이를 적절히 활용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진로 의사결정 기술을 포함하는 능력</li> </ul>
박혜경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직업이나 직무에만 한정된 구체적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 능력</li> </ul>
정미나 임영식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삶의 전체 맥락에서 진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데 요구되는 개인 내적인 특성이자,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이를 구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li> </ul>
임효신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자기 주도적 및 창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평생 진로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개척·설계·준비·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적·비인지적 측면의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li> </ul>

임효신(2015)은 진로개발역량을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자기 주도적 및 창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평생 진로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개척·설계·준비·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적·비인지적 측면의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로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합한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역량 구성은 진로개발역량 측정 도구의 하위 요소, 진로교육의 일반적인 내용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희, 성은모, 최창욱(2015)과 장현진(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선행연구에서의 진로개발역량의 구성 요소 및 하위 역량을 종합하면 <표 II-2>과 같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진로개발역량의 구성요소 및 하위역량이 제시되고 있으며 연구자마다 진로개발역량과 관련하여 진로역량, 진로·직업역량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용어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소 다른 견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진로에 대한 인식, 탐색 및 설계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며(장현진, 2018) 이 외에도 개척, 계획 수립, 실행, 변화대응, 사회적 역량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표 II-2〉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역량 구성

연구	핵심역량	구성 요소 및 하위 역량
임연(2008)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이해와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li> <li>• 진로계획 및 관리</li> <li>• 학업성취 및 평생학습</li> </ul>
최인재 외(2009)	진로·직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이해</li> <li>• 진로·직업의식</li> <li>• 합리적 의사결정</li> </ul>
주인중(2010)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윤리</li> <li>• 진로설계 및 실천</li> <li>• 변화대응</li> </ul>
류재윤, 이유경(2012)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이해</li> <li>•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li> <li>• 의사결정 기술</li> </ul>
김창환 외(2013)	진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이해역량</li> <li>• 진로탐색역량</li> <li>• 진로준비행동역량</li> </ul>
교육부(2015)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li> <li>• 일과 직업의 세계 이해</li> <li>• 진로탐색</li> <li>• 진로 디자인과 준비</li> </ul>
진성희, 성은모(2017)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이해</li> <li>• 진로 및 직업탐색</li> <li>• 진로결정능력</li> <li>• 여가활용 역량</li> <li>• 개척정신</li> </ul>
임효신(2015)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관리</li> <li>•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li> <li>• 진로설계 및 관리</li> </ul>
장현진(2018)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이해와 사회성</li> <li>• 일과 직업의 세계 이해</li> <li>• 진로탐색</li> <li>• 진로설계와 준비</li> </ul>

## 나. 유사개념

### 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의 개념은 1940년대 청소년들의 진로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처음 등장하여 1950년대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 확립된 개념이다. Super(1957)에 의하면 발달적 관점에서의 진로성숙은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 준비정도와 대처행동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한 개인이 속해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 라고 할 수 있다. Crites(1971)은 진로성숙이란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정의적 특성으로 동일한 연령계층의 청소년과 비교하여 보다 일관되고 현실적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한국교육개발원(1991)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에 기반한 진로 계획과 선택 과정의 진로성숙을 강조하였으며, 동일한 연령 또는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과의 발달과업 수행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진로성숙이란 자아와 직업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개인의 일생을 결정하는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동일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또한 발달적 과정으로서 진로성숙이란 자기 이해, 일과 직업세계 이해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조정해 나가는 발달단계의 연속(김병숙, 2007)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진로성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얼마나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도달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목표로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다(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진로성숙은 개인의 능력, 성격, 흥미 등 개인특성 요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 맥락적 요인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며(정운정, 2010) 진로성숙도가 높다면 향후 진로와 직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전화숙, 임혜정, 이기혜, 2016).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과정과 발달단계를 이루기 위한 행동이나 태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개인차를 기술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시작된 개념으로 (김선경, 2017), 이는 발달수준을 강조한 개념으로 진로역량과 유사한 개념이다 (김소라, 황영준, 2016; Crites, 1974; Super, 1953). 진로성숙도가 연령에 따른 수동적인 ‘발달’의 과정과 단계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진로개발역량은 ‘개발’과 ‘역량’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보다 적극적인 능력의 개발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다.

## 2)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은 개인이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선택시점에서 진로에 대하여 결정하게 되는 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Crites, 1974). 또한 진로결정수준은 전공 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한다(고향자, 1992).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로써 자신의 진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다는 뜻이며, 대학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에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 분야에 대한 선택 등을 의미한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진로결정수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진로결정, 진로미결정의 개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 결정이란 진로설계와 계획이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며, 진로미결정은 진로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 선택에 대한 두려움,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정보의 부족, 자신과 환경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으로 제시된다(강선영, 1996). Crites(1974)는 진로미결정이 개인이 진로선택 및 결정단계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진로미결정은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서 발달 단계에 맞춰 진행 중인 상태이며, 상황적 혹은 발달 과정상 진로 결정이 안 된 상태인 ‘단순한 진로미결정’과 생활과 행동 전반에 걸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우유부단



한 ‘만성적인 무결정’으로 나뉜다(김계현, 1995). 진로미결정자들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시 압박을 크게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직업 세계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얻기 전까지 결정과정을 연기한다. 또한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 및 일상생활 속 여러 결정들에 대해 쉽게 나서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진로결정수준은 여러 연구자를 통하여 정의되었으며 이를 종합하면 <표 II-2>과 같다.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이라 할 수 있으며(김봉환 외, 2010) 진로개발역량이 진로와 관련된 능력 개발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때 진로결정과 관련된 수준을 의미하는 진로결정수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로개발역량이 전 생애적 관점에서 진로에 대한 인식, 탐색 및 설계를 포함하는 과정적 의미임을 고려할 때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의 연속선상의 한 지점을 의미하는 진로결정수준과는 의미상의 차이를 보인다.

<표 II-3> 진로결정수준의 정의 종합

연구자	정의
고향자(1992)	• 전공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진행수준 그리고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
김봉환(1997)	• 진로미결정과 확고한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
송영란(2007)	• 고교 계열 및 고교 그리고 대학과 대학 전공, 직업의 선택과 관련한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 그리고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라고 보았다.
이재선(2011)	• 자신의 전공 선택 및 직업선택 등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확신의 정도

## 다. 측정

1989년에 미국직업정보조정위원회가 개발한 ‘미국진로개발지침(NCDG: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은 초·중등학교에서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주 단위의 진로교육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진로개발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수준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장명희, 김선태, 박윤희, 최동선, 2010). 즉, 다양한 유형의 진로개발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독특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 이들 프로그램이 진로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든 수준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인력, 자원, 경영 등에서 분명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진로개발 성취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캐나다의 Blueprint for life/Work Design(BLWD), 호주의 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ABCD)는 광의의 진로개념을 적용하여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진로개발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정미나, 임영식, 2013).

이지연(2001)은 미국의 진로개발역량지표(NCDA, 1989)를 번안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개발역량을 자가진단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학생생활상담소 및 취업지원센터의 전문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문항에 대한 내용을 타당화 하였다. 이는 진로개발역량의 점수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검사가 여러 가지 검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미국의 진로개발역량 지표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2004년과 200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진로개발역량지표를 수정하여 발표(임연, 최동선, 2006; 진미석, 윤희한, 2004)하였으나 이는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6년 학교 진로개발역량 지표조사를 통해 진로개발 역량을 측정하고 초·중·고·대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의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진로교육 현황조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권미경(2019)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에 맞게 이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이윤희(2013), 박선숙(2019)의 연구에서는 진로·직업역량 척도로서 2009 한국청소년진로·직업지표연구Ⅳ(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에서 개발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검사 도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항 구성이 다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미나, 임영식(2013)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지식, 태도, 기술을 규명하고, 진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진로개입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개발역량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 하였다. 국내 진로개입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고 기존의 측정 도구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 도구로,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계획 및 준비의 3개 영역과 각 영역 별로 3개의 하위 영역, 즉 9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문항은 총 41개이다. 진성희, 성은모(2017)는 생애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관점에서 진로개발역량을 정의하고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의 하위역량으로 타당화 과정을 거쳐 총 45문항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다. 진로개발역량 측정 문항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표준 샘플링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이들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검사도구라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중학생이 응답하기에 다소 어려운 문항이 존재하였다.

임효신(2015)의 연구는 국내·외 진로개발역량 관련 연구의 연구절차 및 연구방법을 종합·분석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개발역량 개념모형을 구안하였

다. 이는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개념과 구성요소를 구조화한 것으로 진로개발역량의 영역을 개인적 및 사회적 개발,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 진로설계 및 관리로 도출하고 10개의 하위요소, 35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영역, 하위요소 및 성취기준 각각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개념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자기관리,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 진로설계 및 관리의 3개 영역, 8개 하위요소의 총 49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진로개발역량의 개념모형을 종합하였으며 신뢰도를 확보한 조사 도구로 임효신(2015)의 검사도구를 선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검사 대상이 중학생임을 고려하여 중학생의 진로개발과제로 볼 수 있는 개념모형 내 성취기준을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관련 연구로 한정하여 종합·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중학생의 진로 발달 특성 및 과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연구자와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는 등 우리나라 중학생의 진로발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단계의 학교 진로 교육과정이 문항 개발 시 활용되었으며 검사도구 개발 과정에서 변별타당도, 구인타당도, 준거타당도, 신뢰도 등이 모두 적절한 양호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라. 관련이론

### 1) 생태학적 이론

Bronfenbrenner(1989)의 생태학적 접근은 인간 전 생애를 포함하지만 특히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 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직업선택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라는 사회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인간발달에 대한 모형으로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의 다섯 가지 환경적 체계가 상호작용하여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유진이, 2018).

생태학적 이론에서 미시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의 독특한 물리적, 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활동과 역할 및 대인관계의 유형이다. 여기서 환경이란 가정, 학교, 청소년단체 및 각종 업소와 같이 사람들이 쉽게 얼굴을 마주 대하며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다. 활동, 역할 대인관계의 요인들은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또는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건축 자재인 셈이다. 미시체계는 가정, 친구, 학교, 교사, 이웃과 같은 환경을 말하며, 청소년들은 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이는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수동적인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중간체계는 가정에서의 경험과 학교경험의 관계, 가정생활과 친구와의 관계 등과 같은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성 또는 맥락 간의 연결을 의미한다. 외부체계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로서 부모의 직장, 종교, 대중매체, 지역 사회서비스 등을 뜻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거시체계는 사회의 가치, 법, 규범, 전통 등으로 신념 및 관습과 관련된 것이며 시간체계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개인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간의 변화를 뜻한다(조형숙 외, 2014).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 생물학적인 측면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 및 문화적 맥락을 통해 발달과정을 설명하며, 모든 사람은 외부체계 내부에 위치한 중간체계 안의 미시체계 속에서 발달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 모든 것은 거시체계 속에서 발달하고 시간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생태학적 이론은 중학생의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미시체계로서 부모와의 관계 및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와 활동, 중간체계로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가정과 학교에서의 경험의 상호작용, 개인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학적

이론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는 근거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태학적 이론에서 개인의 진로발달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인지적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은 진로발달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사회인지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은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Hackett과 Betz(1981)가 여성의 진로발달 및 선택을 설명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진로발달 및 진로결정 관련 이론들은 개인의 진로선택이 개인의 특성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여긴 반면, Hackett과 Betz(1981)는 인지적 변인을 추가하여 개인의 진로선택을 바라보았다.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개인적 목표의 세 가지 변인이 개인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전미리, 2017). 이는 진로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인 내적 요인에만 초점을 두었던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맥락에도 초점을 두는 새로운 관점을 취하고 있다(조혜은, 2019).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주요 구성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맥락 요인을 제시한다. 자기효능감이란 목표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86). Bandura(1986)는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이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고, 이 자신감은 과거 수행 성취,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특정 영역에서의 생리적·정서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3요소(개인, 환경, 행동) 중 개인 요소의 핵심요소이고, 진로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개념 중 하나(Lent, Brown, 1994; 전미리, 2017)로써, 진로와 관련한 선택과 행동을 예측하며, 여러 능력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Lent, Brown, 1994). 결과기대란 특정한 과업을 수행했을 때 자신과 주변에 일어날 일에 대한 평가(Bandura, 1986)로 행동의 결과로 얻게 될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일어날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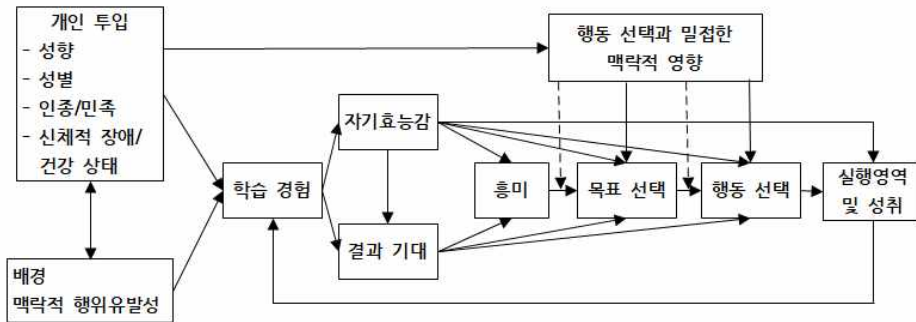
신과 타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라는 점에서, 능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효능감과 구별되며, 진로선택을 비롯한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목표는 특정한 활동 혹은 미래의 특정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련되는 확신으로써, 개인적 목표는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데 영향을 주며, 장기간 동안 개인의 행동을 조직하고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Lent, Brown, 1994).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환경 변인을 크게 근접맥락변인과 배경맥락으로 나누어 개념화하고 있다. Vondracek 외(1986)는 직업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을 연구하였고, 특정 맥락이 개인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Sharf, 2006). Lent와 Brown(1994)는 맥락적 요인을 근접 맥락(proximal context)과 배경 맥락(distal context)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배경 맥락은 학습경험 및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목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조건, 인종, 성, 문화 등의 지지와 장벽을 의미한다. 반면, 근접 맥락은 진로선택 시점과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진로선택 및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지 및 장벽을 의미한다(전미리, 2017). 맥락적 지지 변인은 지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효능감 등의 변인에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

Lent와 Brown(1994)은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관련하여 흥미발달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의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고, 선택모형이 흥미발달모형과 수행모형을 내포한다(김봉환 외, 2010; Lent 외 1994)고 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 선택모형은 진로흥미발달이 진로와 관련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인변인과 맥락변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Bandura(1986)는 환경 맥락 요인이 직접적으로 인간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효능감과 같은 개인 내적인 자기조절 기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는데 반해,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선택모형은 이러한 간접 경로뿐 아니라 지지와 장벽 등 근접 맥락 요인은 목표와 진로발달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을 제시한다. Lent와 Brown(2008, 2013)은 근접 맥락요인이 효능감과 결과기

대를 통해 목표와 행동,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밝혔고, 이는 근접맥락 요인의 진로발달에 대한 영향에 있어 Bandura(1986)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제안된 자기조절 기제의 매개적 역할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II-1]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선택모형

자료: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p. 93.

### 3. 부모진로지원행동

#### 가. 개념

부모는 자녀의 교육적 발달과 진로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Niles & Harris-Bowlsbey, 2009; Shartland, Kreider, & Erickson-Warfield, 1994), 부모는 자녀에게 직업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직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Turner et al, 2003). 자녀 진로 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왔다. 기존의 자녀 진로선택 및 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부모의 양육 태도나 애착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어린 시절 회상을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억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시간 변화에 따른 양육방식의 변화 및 애착 형성의 변화를 다루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의 진로 선택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과 관련하여 부모진로지원행동은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모 관련 변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이영광, 양인준, 이승엽, 2019),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을 많이 받은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도와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자녀가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며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성숙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다(Otto, 2000; Pearson & Bieschke, 2001).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에 대하여 김지현 외(2007)는 부모의 지지와 격려, 도움 행동은 자녀의 진로 탐색을 촉진 시킴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진로성숙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우영진(2011)은 부모의 지지나 격려, 도움행동은 청소년 진로성숙을 촉진시키며 청소년들이 진로 선택과 진로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숙된 태도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부모는 진로 관련 행동을 직접 모델링 해주거나 진로와 관련된 학습경험, 탐색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적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심리적 지지 및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서진희, 2009).

Turner 외(2003)는 부모가 자녀들의 역할 모델로서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적 동기 부여자, 직업 정보 자원, 발달 환경의 제공자로 작용함으로써 자녀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Bandura가 제안한 자기효능감 개념을 기반으로 도구적 조력, 진로관련 모델링, 언어적 격려, 정서적 지지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진로관련 부모지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Keller, Whiston(2008)은 초기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부모의 행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적 지지, 진로정보제공의 하위 요소를 포함하는 부모진로지원행동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부모의 자녀 진로와 관련된 행동에서 심리적 지지를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연구자들은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로성숙도나 진로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Dietrich, Kracke(2009)는 부모진로관련행동을 자녀의 진로발달과 관련해서 진로탐색 및 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에 도구적, 정서적 측면에서 부모가 관여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며, 자녀의 진로 발달에 직접 개입하는 부모의 행동을 지지(support)와 간섭(interference) 그리고 관여 부족(lack of engagement)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진로관련행동의 하위요인인 지지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해주는 행동을 의미하며, 간섭행동은 자녀의 진로탐색이나 준비에 대하여 부모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하거나 따르도록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관여부족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한 무관심이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서진희, 이제경(2009)은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을 부모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부모진로행동은 자녀의 진로발달 측면에서 심리적 지지를 통해 진로적응을 돕고 진로발달에서의 역할 모델자(role model)로서 직업적 동기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능력을 강화해주는 부모의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은선(2012)는 부모진로행동이 부모와 자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도우며 부모가 진로 관련 역할 모델자로 아동에게 직업적 정보와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며 문제해결 시도 전을 받아들일 능력을 강화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조아라(2013)는 부모진로관련행동을 자녀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진로탐색 및 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에 부모가 도구적, 정서적 측면에서 관여하는 행위이라고 정의하였다. 지경진(2016)은 부모진로행동을 아동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아동이 하고 싶은 일이나 재능이 있는 분야에 대해 가치가 있음을 부모가 느끼게 해주며, 부모가 아동의 역할 모델뿐 아니라 물질

적 기술적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부모진로지원행동과 관련된 정의를 종합하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부모진로지원행동의 정의 종합

연구자	정의
Dietrich, Kracke (2009)	자녀의 진로 발달과 관련해서 자녀의 진로탐색 및 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에 도구적, 정서적 측면에서 부모가 관여하는 행동
서진희, 이제경 (2009)	자녀의 진로발달 측면에서 심리적 지지를 통해 진로적응을 돕고, 진로발달에서의 역할 모델자(role model)로서 직업적 동기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능력을 강화해 주는 부모의 행동
조아라(2013)	자녀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진로 탐색 및 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에 부모가 도구적, 정서적 측면에서 관여하는 행위
유은선(2012)	부모와 자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도우며 부모가 진로 관련 역할 모델자로 아동에게 직업적 정보와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며 문제 해결 시 도전을 받아들일 능력을 강화해 주는 것
지경진(2016)	부모진로행동을 아동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아동이 하고 싶은 일이나 재능이 있는 분야에 대해 가치가 있음을 부모가 느끼게 해주며 부모가 아동의 역할 모델 뿐 아니라 물질적 기술적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것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로지원행동은 심리적지지, 진로정보제공, 도구적 조력, 진로관련 모델링, 언어적 격려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부모진로지지, 진로관련 부모지지, 부모진로행동, 부모진로관련 행동 등의 용어가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Keller, Whiston(2008)의 부모진로행동검사(Parent Career Behavior Checklist: PCBC)를 적용한 다수의 선행연구(김동주, 2017; 이상무, 2016; 이상무, 박관성, 2019; 이재우, 2019; 지경진, 2016)에서 부모의 자녀 진로지원에 대한 행동을 부모진로행동의 명칭으로 연구하였으나 이는 용어의 의미 파악이 모호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유진(2018)은 ‘부모진로관련행동’의 명칭

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Dietrich, Kracke(2009)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모진로지도행동’ (유현심, 2013; 최정우 2015)의 경우 상하 관계를 기반으로 할 때 지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는 면에서 제한점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eller, Whiston(2008)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원행동(parental support behaviors), 지원적인 부모행동(supportive parental behaviors)라고 표현된 것과 부모의 자녀 진로에 대한 행동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용어로서 ‘부모진로지원행동’으로 변안한 천아룡(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부모진로지원행동의 명칭을 적용하고자 한다. 부모진로지원행동은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진로관련 정보제공을 포함하며, DeRidder(1990)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와 직업선택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자녀에 대한 믿음과 격려 및 진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의 진로에 도움을 주는 행동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부모진로 관련 지지행동과 진로와 관련된 모델링, 진로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부모진로지원행동은 부모와 자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도우며 부모가 진로 관련 역할 모델자로 아동에게 직업적 정보와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고 문제해결 시 도전을 받아들일 능력을 강화해 주는 것(유은선, 2012)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나. 측정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는 개인적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시기에 특히 중요한 사회적 맥락은 부모(최선경, 2019)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호직업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를 꼽고 있다(진미석, 손유미, 2000; 한상근, 2009). 부모는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직접 모델링을 해주거나 진로와 관련된 학습경험과 탐색들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적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가장 중요한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서진희, 2009).

Turner 외(2003)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기반으로 진로관련 부모 지지 척도(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를 개발하였으며 부모의 교육적, 직업적 효능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측정한다. 이는 하위요인으로 도구적 조력, 진로관련 모델링, 언어적 격려, 정서적 지지의 4가지를 제시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구적 조력’은 청소년의 진로관련 기술 발달을 위한 부모의 지지를 의미하며, ‘진로관련 모델링’은 부모가 진로와 관련된 직업 모델이 되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격려’는 청소년의 교육적, 직업적 수행에 대한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의미하고, ‘정서적 지지’는 교육적, 직업적 발달과 관련된 청소년의 관계 내 경험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의미한다. 이는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다양한 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평범한 중학생에게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진다(Turner et al, 2003). 국내에서는 김수리(2004)의 연구에서 진로관련 부모지지 척도(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를 번안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

Keller, Whiston(2008)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반적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초기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구체적인 행동을 찾고자 부모진로행동검사(Parent Career Behavior Checklist: PCBC)를 개발하였다. 심리적지지, 진로정보제공, 기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적 지지’는 직업적, 교육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과 관련한 진로 행동으로 자녀들의 직업적, 교육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격려와 칭찬을 의미한다. ‘진로정보제공’은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기술 발달을 위한 부모의 진로 행동을 의미한다. 서진희, 이제경(2009)은 Keller, Whiston(2008)의 부모진로행동검사(Parent Career Behavior Checklist)를 번안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으며 심리적 지지, 진로정보제공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항 표현의 적절성과 명료성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 중 어떠한 요소가 중학생 자녀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Dietrich, Kracke(2009)는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 요소를 포함하여 지지, 간섭, 관여 부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부모진로관련행동(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PCB) 척도를 개발하였다. 부모의 지지행동은 자녀의 진로에 관한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은 자녀의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현주(2010)는 부모진로관련행동척도(PCB)를 변안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2013)은 이를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K-PCB 척도를 개발하였다. 부모진로관련행동척도(PCB)의 경우 부모진로관련행동을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부정적 측면에 대한 문항의 비중이 높아 부모의 어떠한 진로지원행동이 중학생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는가에 대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상희(2009)는 기존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가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다고 보고, 자녀의 진로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진로지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영은(2014)은 자녀 진로에 부모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가 제한적이고,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와 유형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관여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해당 도구는 부·모가 각각 측정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고 개입, 심리적 지지, 행동적 지지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어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부모의 진로지원 형태가 상당부분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정은진 외, 2018)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문항이 다소 적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으며 하위 요인으로 심리적 지지와 진로정보제공을 제시하고 있는 서진희, 이제경(2009)의 부모진로지원행동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 심리적 지지는 부모진로지원행동과 관련한 용어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하위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진로정보제공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진로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한상근 외, 2019)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진로지원행동에서 중요한 하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도구를 사용하여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진로정보제공 수준을 통하여 부모진로지원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

## 4. 학교적응

### 가. 개념

사회적 의미로서 적응은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윤인진, 2000). 적응이란 개인과 객관적인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 또는 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이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오미섭, 2013).

학교는 청소년들의 주된 생활공간으로 주요한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을 발달시키고, 유능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며 지적 역량을 발달에 기여한다(Vieno, Santinello, Pastore, & Perkins, 2007). 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학교환경, 규칙, 분위기, 학습내용 및 학습과정, 교사와 교내 구성원, 또래들 등 학교의 다양한 요소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배우게 되며, 학교는 학생이 적응해 가야 하는 생활과제의 장이기도 하다(이규미, 김명식, 2008).

Bierman(1994)은 학교적응은 고정된 구성 개념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상호

평가에 의한 역동적인 과정이며,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Ladd, Kochenderfer, & Coleman(1996)은 학교적응을 학교 환경에 대한 학생의 지각과 감정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학교적응을 학생이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적응의 각 영역은 학생의 이후 교육적 진보의 중요한 전조가 된다고 하였다. 김용래(1993)는 학교적응을 태도와 구분하여 태도는 정의적 특성에 해당하지만 적응은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의 특성을 공유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았으며 학교적응은 학습자가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제반 교육적 여건을 자신의 요구에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에 관련된 제반조건을 바르게 수용하여 학교상황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시도라고 정의하였다. 차유림(2000)은 학교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 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곽수란(2006)은 학교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서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 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송유진(2015)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개인의 만족과 성장을 위해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는 개인과 학교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학교적응이라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표 II-5>와 같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의 개념적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학교적응의 개념은 학교 환경에 개인이 적응해나가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나, 점차 개인이 학교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교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학교적응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개인의 만족과 성장을 위해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학교환



경을 변화시키는 개인과 학교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송유진, 2015)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II -5〉 학교적응의 정의 종합

연구자	정의
Bierman(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적응은 고정된 구성 개념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상호평가에 의한 역동적인 과정이며,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과정</li> </ul>
Ladd, Kochenderfer, & Coleman(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이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li> </ul>
김용래(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가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제반 교육적 여건을 자신의 요구에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에 관련된 제반조건을 바르게 수용하여 학교상황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시도의 정도</li> </ul>
주현정(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절한 조화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및 학교규범 준수</li> </ul>
차유림(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서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 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li> </ul>
문은식(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외현적, 내재적 행동</li> </ul>
문승태(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상황 내의 제반요구에 맞추어 잘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li> </ul>
곽수란(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서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 하는 적극적인 과정</li> </ul>
박은영(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자기에 맞게 수용하고, 자신의 욕구와 환경을 적절히 조절하여 원만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것</li> </ul>
송유진(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개인의 만족과 성장을 위해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는 개인과 학교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li> </ul>

## 나. 측정

학교적응에 대하여 정의하는 방식과 하위차원, 측정지수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며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적응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김용래(1993)는 학교는 생활공간 자체로서 중요하며 학교적응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과정과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교육적 여건을 변화시키거나 바르게 수용하게 된다고 보고 각급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습자의 학교적응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를 1995년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문항을 수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으며 이 두 척도를 2000년 연구에서 재타당화를 위한 검증을 통하여 각급 학교 학습자의 학교적응 변인을 현재 시점에서 보다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학교적응척도를 개발하였다(김용래, 2000). 학교적응척도(김용래, 2000)는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단계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윤희(1994)의 연구에서 임정순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와 전호택의 ‘학교생활검사지’를 토대로 중·고등학교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학교생활 적응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2문항으로 각 하위 요인별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별 내용으로 교사관계는 교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도움을 청하려는 정도, 꾸중에 대한 반응, 긍정적 감정의 표현 적절성 여부를 의미하며 교우관계는 친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학급 생활의 적극성 여부, 친구에 대한 관심 여부를 뜻한다. 학교수업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공부할 때의 어려움, 주어진 과제의 해결 여부를 의미하며 학교규칙은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구은희, 2011; 윤영미, 2009).

Ladd, Kochenerfer & Coleman(1996), 광기상(1980), 정순례(1992)의 연구를 참고하여 황경미(1998)이 재구성한 학교적응질문지는 지적·정의적·도덕적 발달을 위해 학교 교육 과정과 상황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학교적응이라고 보고 아동이 학교, 학급에서의 생활을 얼마나 잘 해나가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하위 영역은 학교에 대한 지각, 학교·학급에서의 활동성, 학업관련 태도 및 행동 등이며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orrigan(2003)이 개발한 학교적응척도(School Adjustment-Child) 개정판을 Ma, Kim과 Ahn(2015)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총 20개 문항으로, ‘교우관계(relations with other student)’, ‘학업/규율(Academic/disciplinary)’, ‘학교/교사(school/ teacher)’의 3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규미(2005)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국내외 선행연구(김용래, 1993; 김용래, 허남진, 2003; 김지혜, 1998; 정순례, 1992; Berndt & Keefe, 1995; Roeser & Eccles, 1998; Simon-Morton & Crump, 2003)의 학교적응에 대한 하위영역과 문항을 참고하여 전문가 문항검토와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총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38문항을 추출하였고, 상위의 4개 차원(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38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0으로 구조방정식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이 척도의 하위영역의 점수들은 교사들이 평가한 부적응 지표, 성적, 출결상황, 징계유무 등의 행동준거들과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관련 타당도와 외적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는 학교적응의 측정이 가설적 차원이나 이론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타당도 검증을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포괄하여 학교환경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적응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규미

(2005)의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를 이규미, 김명식(2008)이 타당화한 ‘중학생의 학교적응 척도’에서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4개 차원의 문항을 사용하여 학교적응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 5. 자기효능감

### 가. 개념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개인이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 및 자신감, 신념을 의미한다. Schunk(1984)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데 요구되는 행동이며, 그것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행위의 선택과 노력의 정도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활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어진 과제의 시도와 노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Betts와 Hackett(1981) 역시 자기효능감이 인간발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ood, Mento와 Loke(1987)는 자기효능감을 과제 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 행동 수행에 대한 자기 능력의 개인적 측정으로 보았으며,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Gallathy와 Meyer(1992)는 높은 자기효능감이 과제 수행에 있어 불안보다는 동기 부여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Gardner와 Pierce(1998)는 자기효능감을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는 허경철(1991)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고, 이병임(1999)은 자기효능감을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활동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유지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김순미(2009)는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이를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Ⅱ-6>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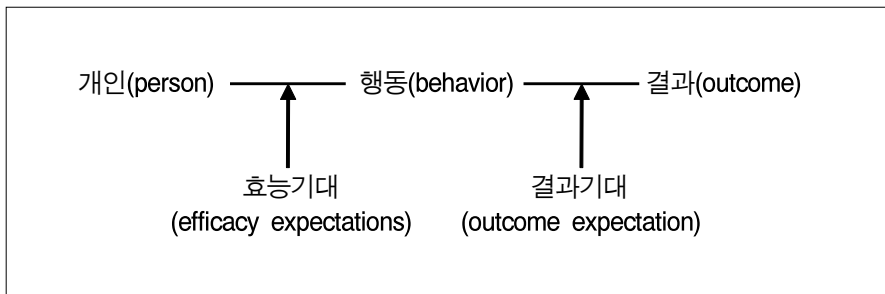
<표 Ⅱ -6> 자기효능감의 정의 종합

연구자	정의
Bandura(1977)	•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Bets & Hakett(1981)	• 인간발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Schunk(1984)	•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데 요구되는 행동이며, 그것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Wood, Mento & Loke(1987)	• 과제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 행동 수행에 대한 자기능력의 개인적 평가
Gallathy & Meyer(1992)	• 과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신념
Gardner & Pierce(1998)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신념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
허경철(1991)	•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
이병임(1999)	•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활동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유지하는 요인
김순미(2009)	•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감의 정도

개인의 심리와 행동은 개인요인, 환경요인, 행동요인들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인 성향과 외부의 영향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나타나며, 자기조절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즉,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 행동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기-지시적(self-directive)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에 의해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통제하기도 한다(Bandura, 1986).

자신의 목표와 수행을 비교함으로써 과정을 진행하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초기의 자기효능감이 타당화 되면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의 조작적 정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기대인 결과기대와 효능기대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II -2] 효능기대와 결과기대의 차이

자료: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p. 193.

결과기대는 주어진 행동이 어떤 확실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예측인 반면, 효능기대는 확실한 결과를 낳는데 요구되는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이라 할 수 있다(Bandura, 1977).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회의가 생긴다면 행동이 유발되기 어려우므로 결과기대와 효능기대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성취 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s), 대리 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적 상태(physiological states)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성취경험은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성공하면 자기효능감은 증가하고, 실패하면 자기효능감은 감소한다. 수행에 있어 완수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특정행동에서 변화하게 하며 다른 행동에 있어서 일반화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대리경험은 개인이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수행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관찰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모델의 행동을 따라하도록 한다. 언어적 설득은 쉽게 이용가능하나 언어적 설득자의 위신, 신뢰성, 노력, 확실성 등에 따라 설득의 효과가 달라진다. 개인은 언어적 설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제안 받고, 효과적인 행동에 대하여 잠정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생리적 상태는 불안, 좌절 등과 같은 정서적 반응으로,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에 따라 자기효능감을 형성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초기에 상황-특수적인 신념으로 개념화되었으나, 완수경험의 과급효과로 확장된 자기효능감은 완수 상황과 유사한 상황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에도 전이되며(Bandura, 1977), 다양하고 많은 성공 경험을 한 개인은 제한된 성공이나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을 한 개인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질 것이다(Sherer, 1983). Eden(2001)은 특정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는 특수 자기효능감을 '상태(state)' 관점의 자기효능감으로 불렀으며, 일반적인 과업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을 '특성(trait)' 관점에서의 자기효능감으로 보았다. 이 관점에 의하면 상태적인 관점의 특수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동기를 설명하는데는 적절하지만 어려운 상황과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기대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등의 행동은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자기효능감은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싫어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어떤 능력의 소유와 사용은 다른 것이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은 수행에 있어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행동을 방향 지을 것이며,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어려움이 닦쳤을 때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Latham & Locke, 1991). 결국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노력의 양과 지속, 인내, 사고패턴, 각성, 궁극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 나. 측정

최초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로서 Sherer 등(1982)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Sherer et al. 's General Self-Efficacy Scale)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며, 새로운 상황으로 전이되는 개인의 일반적 기대를 다루는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herer, 1982).

Schwarzer, Jerusalem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Schwarzer and Jerusalem' s General Perceived Self-Efficacy Scale)는 다양한 장면에서의 새롭고 어려운 과제들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대한 내용으로 총 10문항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표본들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75-.91을 나타냈으며 단일 요인구조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Schwarzer, 2002).

Chen 등(2001)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Chen et al. 's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은 Eden(2001)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정의에 근거하여 “넓고 다양한 영역의 성취 상황에서 수행에 필수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반적 유능감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대하여 측정하며, 단일 요인 구조로서 총 8개의 문항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Chen et al., 2001).

국내 연구에서 차정은(1997)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의 3가지 구인에 따라 구성된 다차원적 척도이다. 문헌분석을 통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귀인의 4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나 요인분석을 통해 귀인은 통제가능성(controlability)에 따라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으로 분류하였으며 요인분석과 상관분석, 타당화 과정을 거쳐 총 24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명확한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행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귀인’ 요인이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파악되었



다(차정은, 1997). 또한 이러한 다차원적 요인구조의 경우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존중감, 신경증, 인과 소재 등과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 같은 잠재적 개념을 측정하고 있어 변별타당도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Sherer와 Maddux(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김애경(1996)이 번안한 것을 류경호(2004)가 수정하여 Likert 5점 척도 26문항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활동시작 능력기대, 활동지속 능력기대, 활동수행 능력기대, 혐오경험 극복 능력기대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효능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문항을 포함한다.

송윤아(2010)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단일차원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는 관점(Eden, 1988; Gardner & Pierce, 1998; Judge, 1997)하에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문항 제작을 위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헌과 기존척도들을 검토하여 14개의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평가 및 수정,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정·삭제하여 총 10개의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각각 측정되었는데, 집단별로 각각 .867와 .874로 나타났으며 타당도 검사 또한 각 집단별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포괄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하나의 특성으로서 단일차원에서 측정하도록 구성된 송윤아(2010)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 6. 변인 간 관계

### 가.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얻고 있으며(장현진 외, 2015; 정은진 외 2018; 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2010

), 직업에 대한 가치관 및 진로선택에서도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현미, 정제영, 2017). 인효연(2020)의 중·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중학생의 경우 부모와 학교 및 학과 선택, 자신의 미래 직업과 흥미나 적성에 관한 대화를 자주 할수록 보통역량이나 고역량 집단보다 최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가정차원에서 중학생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적절한 진로관련행동은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Phillips, Bluestein, Jobin-Davis, & White(2002)는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직업적 흥미와 능력, 다양한 직업 선택을 탐색하도록 격려하며 다양한 경험을 자신의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부모의 지지적 행동을 통해 진로준비과정에 참여하도록 동기유발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는 진로 발달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며(공운정, 2008) 부모의 지지와 격려, 도움행동은 자녀의 진로탐색을 촉진 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김지현 외, 2007).

오정아, 남부현(2014)의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가 중학생의 진로결정성과 진로확신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으며 부모의 지지적인 역할이 자녀의 진로확신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현미, 정제영(2017)은 부모신뢰관계가 중학생의 진로계획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서진희(2009)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로지원행동이 중학생 자녀가 자신의 진로문제에 관해 원활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았으며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진로지원행동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진로행동을 격려, 지지해주고 진로 관련 문제를 자녀와 함께 고민할 때 중학생이 진로 목표를 결정하거나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세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추희선(2014)의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진로에 대한 행동 중 지지행동은 진로성숙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긍정적 진로지지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진로성숙도

를 높여준다고 보았다. 최미옥(2015)의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진로와 관련된 행동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진로지원행동은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유은선(2012)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부모진로행동이 진로성숙과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미숙(2015)은 부모진로관련행동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행동이 많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부모가 진로 관련 경험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진로에 관여하는 것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 발달과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박은선, 2008; 양현주, 연구진, 2015; 임지현, 2004; Guerra & Braungart-Rieker, 1999) 연구모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분리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기존 자녀 진로에 대한 부모의 행동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자녀 진로에 있어 부모의 영향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탐색하지 못하였으며(양현주, 연구진, 2015), 자녀 진로에 대한 부모의 행동 영향이 부와 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볼 때, 부와 모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로관련행동과 수준은 중학생의 진로발달 및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자녀 진로에 대한 어떠한 행동이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나.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학교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건강과 관련하여 지적인 역량을 발달시키고 유능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며 부모 이외의 다른 어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Vieno, Santinello, Pastore, & Perkins, 2007). 학교는 학생들이 제반 여건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며 이는 학교적응으로부터 출발한다(김초선, 2007). 학교적응은 개인특성 및 심리적 변인, 부모 혹은 가정변인, 친구 및 교사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취도 등의 관련변인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이규미, 2005; 김혜주, 2012),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써 학생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Lynch & Cicchetti(1997)은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학습자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으며, 학교생활의 규범이나 질서를 잘 지키고 학습태도 및 교사, 친구 사이가 좋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희옥, 문재우, 박재산, 2005; Birch & Ladd, 1997).

국내·외 선행연구(류경희, 2003; 박승순, 1999; 정규석, 2004; 최지은, 신용주, 2003; Hoy & Sweetland, 2001)를 통하여 학교적응의 하위요인과 진로성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은정, 장운옥(2008)은 개인·가족·학교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원만한 학교생활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이 된다고 보았다. Lynch & Cicchetti(1997), 이지연(2007)은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도도 높고 문제행동은 낮아 긍정적인 진로성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조미형, 최상미, 엄태형(2006)은 학교적응과 진로성숙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여 학교적응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정주원(2014)은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내적성장을 이루어 진로성숙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학교적응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오정아, 남부현(2014)은 김용래(2000)가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의 하위요인인 학교환경, 학교수업, 학교생활을 적용하여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교생활 및 학교수업에 적응을 잘하는 중학생들이 진로준비성과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학교 내 생활과 수업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진로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정아, 정윤태(2015)의 연구에서도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학교환경, 학교수업, 학교생활의 학교적응 요인이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 하정(2015)은 이규미(2005)의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를 적용하여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로 구분하였고 연구결과 학교적응과 진로성숙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별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사와 친밀하고 교사가 지지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며(정규석, 2004; Hoy & Sweetland, 2001), 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 의식 향상에 교사와의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박승순, 1999). 지지적이고 친밀한 친구 관계는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류경희, 2003; 이복원, 2008; 최지은, 신용주, 2003), 친구와의 애착관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민교, 2011). 또한 학업능력은 진로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서우석, 1994; 이은정, 장윤옥, 2008).

이와 함께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인효연(2020)의 중·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진로개발역량 집단 구분(최고역량, 고역량, 보통역량, 저역량 집단)을 예측하였으며,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최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중학생 진로발달 및 진로개발역량의 향상에 있어 학교적응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학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요소에 대한 적응 수준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 다.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차원 및 행동절차를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신념으로 수행에 대한 성공적 기대감 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김재희(2019)의 학교 진로교육활동과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개발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심, 이기형(202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개발역량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개발역량의 개념을 진로발달 및 성숙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은경(2001)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진로의식 하위요인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신의 진로문제에 관해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진로문제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김미숙(2008)의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하여 진로성숙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나타났다. 홍향연, 유태명(2008)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 요인, 학교 요인을 들 수 있으며 자기 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이선(2008)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각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확신성과 준비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은정, 장윤옥(2008)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진로태도성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완성, 김미숙(2009)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곽미정, 김태동, 김형모(2014)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에게 있어 자기효능감은 진로 성숙의 하위요인인 계획성, 성향, 타협성, 결정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중학생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진로개발역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 연구결과는 많지 않으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 라.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Betz & Vuyten(1997)은 자기효능감이 특정 행동 수행 혹은 행동 변화를 결정하는 중재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동기 수준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았다. 자기효능감은 가족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며, 언어적 설득으로 향상될 수 있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Bandura, 1977). 부모는 다양한 성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을 도울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환경을 통제하고 삶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의 신념이 된다(Turner, Norman & Zunz, 1995).

서진희(2009)는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하여 중요한 타인과 자신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로관련 의사결정을 확고히 하게 되고, 진로관련 탐색활동을 통하여 진로 목표를 선택하며,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진로관련 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김수리(2004)의 연구는 부모의 지지행동은 청소년들에게 진로관련 지지를 제공하여 유능감을 높여주고 청소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진로를 탐색,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장지성(20

13)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 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이는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민정(2018)은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부모, 교사, 친구)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이 진로성숙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적응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은순(2008)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에서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하위요인별로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교사관계의 순서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정아(2002)의 연구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행사 참여의 영역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았으며, 김인창(2009)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친밀감,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김미숙(200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보다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생활적응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김문정(2003)은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학교적응을 잘하면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김초선(2007)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이들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 특히 학교적응과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임을 확인하였다. 전경련(201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학교적응 간의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성심, 이기형(2020)의 부모지지, 교사관계,



진로교육활동만족도,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역량 간의 구조적인 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지지, 교사관계는 자기효능감의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지지와 교사관계는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는 부모진로지원행동의 하위 요인으로, 교사관계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며.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으며,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마. 변인 간의 관계 종합**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 <표 II-7>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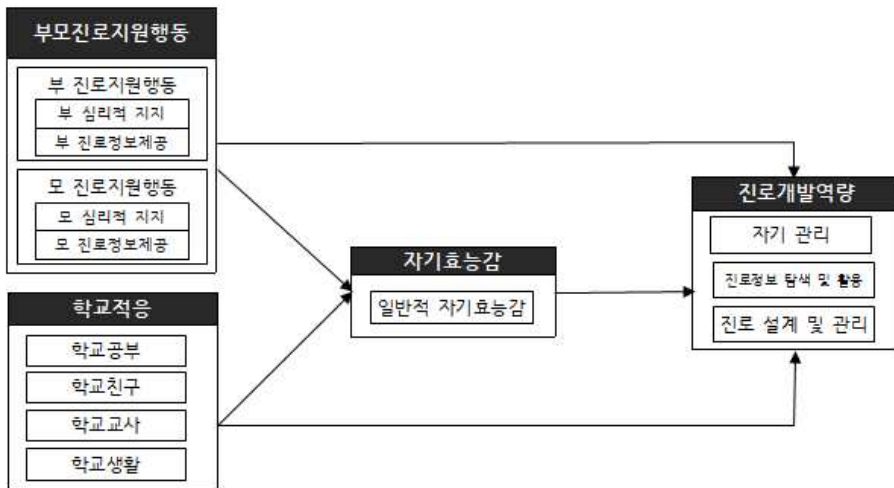
〈표 II -7〉 변인 간의 관계 종합

구분	경험적 연구	이론
부모진로지원행동→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운정(2008) 광미숙(2015) 김지현 외(2007) 서진희(2009)</li> <li>• 오정아, 남부현(2014) 우영진(2011) 유은선(2012) 이현미, 정제영(2017) 조아라(2013)</li> <li>• 추희선(2014) 최미옥(2015)</li> <li>• Otto(2000) Pearson &amp; Bieschke(2001) Phillips, Bluestein, Jobin-Davis, &amp; White(2002)</li> </ul>	<p>생태학적 이론 (Ecological systems theory)</p> <p>사회인지 진로이론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p>
학교적응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란, 하정(2015) 류경희(2003) 박승순(1999) 서우석(1994) 오정아, 남부현(2014) 오정아, 정윤태(2015) 이복원(2008) 이은정, 장운옥(2008)</li> <li>• 이지연(2007) 인효연(2020) 정규석(2004) 정민교(2011) 정주원(2014) 조미형, 최상미, 엄태형(2006)</li> <li>• 최지은, 신용주, (2003) 최희옥, 문재우, 박재산(2005)</li> <li>• Birch &amp; Ladd(1997) Hoy &amp; Sweetland(2001) Lynch &amp; Cicchetti(1997)</li> </ul>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경찬(1997) 김미숙(2008) 김민(2007) 김수리(2005) 광미정, 김태동, 김형모(2014)</li> <li>• 박완성, 김미숙(2009) 이순정(2010) 이은경(2001) 이은정, 장운옥(2008) 최수정(2007) 최이선(2008) 홍향연, 유태명(2008)</li> <li>• Hackett &amp; Betz(1981) Taylor &amp; Betz(1983)</li> </ul>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미숙(2008) 김민정(2018) 김수리(2005)</li> <li>• 김조선(2008) 서진희(2009) 인효연(2020)</li> <li>• Betz &amp; Voyten(1997) Turner, Norman &amp; Zunz(1995)</li> </ul>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에 따라 설정된 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연구 모형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성별의 영향(남수정, 2010; 박혜경, 2013; 이민희, 2012; 전화숙, 임혜정, 이기혜, 2016; 조아라, 2013;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2009; 한귀녀, 유순화, 송현아, 2009), 학년의 영향(어윤경, 2008; 이민희, 2012;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2009; Crites, 1974), 지역의 영향(김중운, 2006; 오정아, 정운태, 2015)등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이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학생의 성별과 학년, 지역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 2. 연구 대상

### 가. 모집단

본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학생으로 2019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교육부, 2019)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 수는 1,294,559명이다. 지역별 학생 수 및 학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전체 학생 수 중 수도권에 재학하는 중학생 수는 634,903명이고 비수도권에 재학하는 중학교 학생 수는 659,656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약 1:1.03의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예체능 계열 중학교(체육중학교, 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수는 1,230명으로 전체 중학교 학생 수의 0.1%의 비율을 보여 일반 중학교와 예체능 계열 중학교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중학생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수 1,294,559명 중 여학생 수가 623,115명임을 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1:0.93임을 알 수 있다.

〈표 Ⅲ-1〉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 수 및 학교 수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지역	학생 수			학교 수
		전체	일반중학교	예체능 중학교	
수도권	서울	207,413(99,215) <sup>1)</sup>	207,262(99,162)	151(53)	386(1) <sup>3)</sup>
	경기	353,032(171,732)	352,935(171,685)	97(47)	630(1)
	인천	74,458(35,974)	74,458(35,974)	-	135
소계		634,903(306,921)	634,655(306,821)	248(100)	1,151
비수도권	부산	73,338(35,415)	72,807(35,077)	68/463 <sup>2)</sup> (27/311)	172(1/2)
	대구	62,539(29,826)	62,468(29,797)	71(29)	125(1)
	광주	43,068(20,733)	42,846(20,646)	222(87)	90(1)
	대전	40,732(19,597)	40,642(19,571)	90(26)	88(1)
	울산	30,935(14,653)	30,834(14,610)	101(43)	63(1)
	세종	11,202(5,591)	11,202(5,591)	-	24
	강원	37,701(18,058)	37,615(18,030)	86(28)	162(1)
	충북	40,839(19,628)	40,839(19,628)	-	136
	충남	56,031(27,040)	56,031(27,040)	-	186
	전북	48,648(23,396)	48,472(23,288)	75/101(27/81)	209(1/1)
	전남	45,663(22,027)	45,504(21,977)	159(50)	248(2)
	경북	61,393(29,018)	61,283(28,981)	110(37)	262(1)
	경남	19,852(10,767)	19,852(10,767)	-	263
	제주	18,899(8,963)	18,899(8,963)	-	45
소계		659,656(316,194)	658,674(315,840)	982(354)	2,063
전체		1,294,559(623,115)	1,293,329(622,661)	1,230(454)	3,214

자료: 교육부, (2019). 교육통계연보. 세종: 교육부, 재구성.

주1) 괄호 안의 수는 여학생의 수를 의미함.

주2) 예체능 중학교 학생 수는 '체육 중학교 학생 수(여학생 수)' 또는 '체육 중학교 학생 수/예술 중학교 학생 수(여학생 수)'로 표기하였음.

주3) 괄호 안의 수는 예체능 계열 학교 수를 의미하며, '(체육 중학교)' 및 '(체육 중학교/예술 중학교)'로 표기하였음.

## 나. 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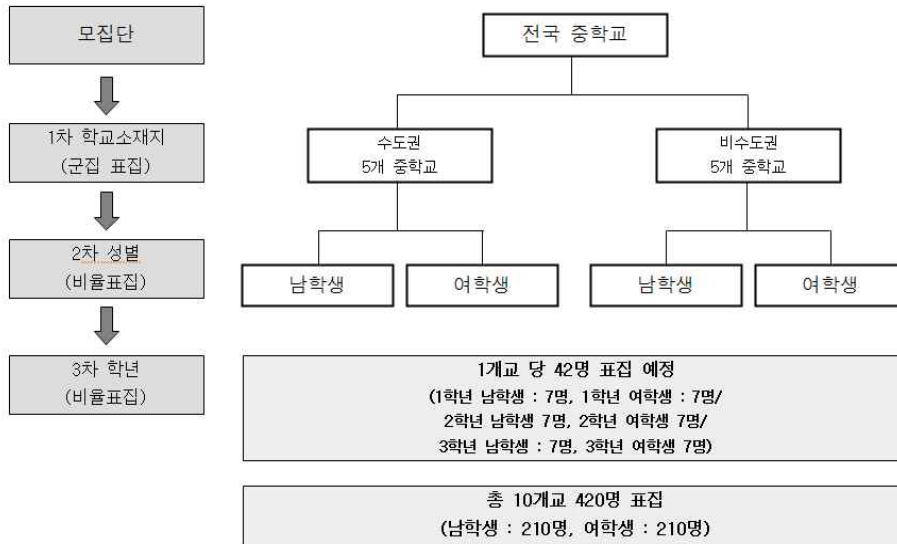
### 1) 표집크기

Krejcie와 Morgan(1970)에 따르면 모집단 크기가 1,000,000명일 때 적정 표본의 수는 384명이며 1,000,000명 이상에서 모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표본 크기는 점차 작은 비율로 증가하여 표본이 380개가 넘는 경우에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사회과학에서는 표집의 크기가 300명 이상일 때 신뢰할만한 표본 집단으로 보고 있으며(류근관, 2005),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응답 및 회수율을 고려하여 적정 표집의 크기를 420으로 설정하였다.

### 2) 표집방법

표집은 전국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표본의 대표성 및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층화군집비율표집을 실시하였다. 층화군집비율표집은 특정 기준에 따라 모집단을 군집으로 나누고, 각 소집단의 빈도에 따라 일정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표본이 편중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이훈영, 2008).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과 학교소재지가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 내에서 성별과 학교소재지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전국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수도권, 비수도권 학생 수에 따라 군집을 나누고, 성별과 학년의 비율을 고려하여 층화군집비율표집을 실시하였다. 표집의 과정은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Ⅲ-2] 표집 과정

먼저 전국의 중학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1:1.03으로 거의 동수비율인 것을 반영하여 수도권 210명, 비수도권 210명을 조사하였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1:0.93 비율로 거의 동수비율임을 반영하여 남학생 210명, 여학생 210명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1개교당 42명을 표집하여, 성별과 학년에 따라 각각 7명씩을 표집함으로써 총 10개교에서 420명을 표집하였다.

<표 Ⅲ-2> 연구의 표집

(단위: 명)

지역	남학생	여학생	합계
수도권	105	105	210
비수도권	105	105	210
합계	210	210	420

### 3.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표 III-2>의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 도구는 질문지 형식으로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 일반적 사항 척도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3> 조사 도구 구성

구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연구자	
진로개발역량	자기관리	17	I-1-17	임효신 (2015)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	20	I-18-37		
	진로설계 및 관리	12	I-38-49		
부·모진로 지원행동	심리적 지지	18	II-1,3,5,7,8,9, 10,12,13,14,16, 17,18,19,21,24, 25,28	서진희, 이제경 (2009)	
	진로정보제공	10	II-2,4,6,11,15, 20,22,23,26,27		
학교적응	학교공부	8	III-1,2,10,11,19, 20,27,33	이규미, 김명식 (2008)	
	학교친구	10	III-3,4,12,13,21, 22,28,29,34,35		
	학교교사	10	III-5,6,14,15,16, 23,24,30,31,36		
	학교생활	10	III-7,8,9,17,18,2 5,26,32,37,38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10	10	IV-1-10	송윤아(2010)
일반적 사항	성별	1	2	V-1	-
	학년	1		V-2	-
총계			127		



## 가. 진로개발역량

본 연구에서 진로개발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효신(2019)의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3개 영역, 8개 하위요소의 총 4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하위요소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기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하위요소에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진로성취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형성되는 역량인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7문항)’,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는 역량인 ‘자기이해(5문항)’, 진로개발 과정 및 미래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인 ‘사회적 기술 함양(5문항)’ 이 있다.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 영역에 포함되는 하위요소에는 다양한 진로정보 탐색 기술을 익혀 관심 있는 진로(직업, 진학 등)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역량인 ‘진로정보 탐색 및 수집(8문항)’, 미래 직업세계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이해하는 역량인 ‘직업세계 이해(5문항)’, 직업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직업태도를 함양하는 역량인 ‘바람직한 직업관 및 직업태도 함양(7문항)’ 이 있다. 진로설계 및 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하위요소에는 삶과 관련하여 진로를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따라 진로계획을 세워 학습하는 역량인 ‘생애기반 진로선택 및 준비(7문항)’, 변화하는 미래 직업 환경에 적응하고 창의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역량인 ‘진로관련 창의성 및 적응력 함양(5문항)’ 이 있다. 임효신(2015)의 연구에서 진로개발역량 측정 도구의 내적 일치도계수는 .96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으로 자기관리 중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901, 자기이해 .834, 사회적 기술 함양 .798, 진로정보탐색 및 활용에서 진로정보 탐색 및 수집 .911, 직업세계 이해 .852, 바람직한 직업관 및 직업태도 함양 .906, 진로설계 및 관리에서 생애기반 진로선택 및 준비 .896, 진로관련 창의성 및 적응력 함양 .859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 측정 도구의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진로개발역량 측정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일치도(Cronbach' s $\alpha$ )	
	예비조사(n=42)	본조사(n=375)
진로개발역량	.947	.944
자기관리	.908	.877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	.876	.900
진로설계 및 관리	.797	.845

#### 나. 부모진로지원행동

본 연구에서 부모진로지원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Keller와 Whiston(2008)이 제작한 부모진로행동 체크리스트(Parent Career Behavior Checklist: PCB C)를 서진희, 이제경(2009)이 번안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부모진로 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행동을 ‘심리적 지지’와 ‘진로정보제공’ 유형으로 분류하여 측정하는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적 지지’는 직업적, 교육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험과 관련된 진로행동으로 자녀들의 직업적, 교육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격려와 칭찬을 의미한다. ‘진로정보제공’은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기술발달을 위한 부모의 진로행동을 의미한다(서진희, 2009).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진로지원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아롱(2014)의 연구에서 부모진로지원행동 측정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3으로 하위요인인 심리적 지지는 .90, 진로정보제공은 .86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원행동 측정 도구의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부모진로지원행동 측정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일치도(Cronbach' s $\alpha$ )			
	예비조사(n=42)		본조사(n=375)	
	부	모	부	모
부모진로지원행동	.867	.881	.944	.931
심리적 지지	.847	.880	.927	.914
진로정보제공	.704	.728	.868	.837

#### 다.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는 이규미(2005)가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하고 이규미, 김명식(2008)이 타당화한 ‘중학생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8문항으로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4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되며, 각 하위차원별로 다시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별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학교공부 차원은 8문항으로 학업유능감, 학업가치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학교친구 영역은 10문항으로 긍정적인 친구관계, 친구와의 상호협조성의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학교교사 차원은 10문항으로 교사에 대한 호감, 교사에 대한 친밀감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고 학교생활 차원은 10문항으로 질서와 규칙준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1점의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의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하위영역별 해당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유진(2015)의 연구에서 학교적응 척도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953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으로 학교공부는 .896, 학교친구 .905, 학교교사 .908, 학교생활 .888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 보였다. 학교적응 측정 도구의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I-6>와 같다.

〈표 III-6〉 학교적응 측정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일치도(Cronbach' s $\alpha$ )	
	예비조사(n=42)	본조사(n=375)
학교적응	.944	.948
학교공부	.767	.854
학교친구	.864	.890
학교교사	.871	.893
학교생활	.851	.861

#### 라.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측정 도구로 송윤아(2010)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5점 Likert 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 구인은 자기효능감의 3가지 차원 중에서 오직 상황과 과제의 일반화 차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으로서 단일차원적인 것으로 개념화된다고 본 이론적 배경에 따라 일반적인 수행과 성취 상황에서 본인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송민정(2014)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41로 나타났으며, 이소현(2018)의 연구에서 .91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의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I-7〉와 같다.

〈표 III-7〉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일치도(Cronbach' s $\alpha$ )	
	예비조사(n=42)	본조사(n=375)
일반적 자기효능감	.894	.920

## 마. 조사 도구 수정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된 조사 도구는 임효신(2015)의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척도, Keller와 Whiston(2008)이 제작한 부모진로행동 체크리스트(Parent Career Behavior Checklist: PCBC)를 서진희, 이제경(2009)이 번안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부모진로행동검사, 이규미(2005)가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하고 이규미, 김명식(2008)이 타당화한 '중학생의 학교적응 척도', 자기효능감의 측정 도구로 송윤아(2010)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중 서진희, 이제경(2009)이 번안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부모진로행동검사는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현재의 중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송윤아(2010)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진로지원행동 척도(서진희, 이제경, 2009), 자기효능감 척도(송윤아, 2010) 두 가지 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조사 도구 수정 과정은 다음의 [그림 III-3]과 같다.



[그림 Ⅲ-3] 문항 수정 과정

본 연구 대상인 중학생에 맞게 수정한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하여 진로교육 전공자 2명과 현직 중등교사 2명을 전문가로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수행한 전문가는 다음의 <표 Ⅲ-8>과 같다.

<표 Ⅲ-8> 전문가 집단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전공	최종학력/경력
진로교육 전공자	임 ○ ○	진로교육	박사
	남 ○ ○	진로교육	박사
현직 중등교사	임 ○ ○	국어교육	20년 이상
	차 ○ ○	영어교육	5년 이상

#### 4. 자료 수집

자료의 수집은 수도권 소재 5개, 비수도권 소재 5개 학교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2주에 걸

쳐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약 1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등교 일정 에 맞추어 자료수집이 진행되었으며, 응답자의 연령과 문항수 등을 고려하여 설 문은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서울특별시 소재 1개 학교에서 전체 학년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기반으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수도권 소 재 5개 학교 및 비수도권 소재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집하였고, 총 42 0부의 설문 중 불성실 응답 45부를 제외하고 총 375부의 설문을 분석에 활용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375명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9>와 같다.

<표 III-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학생	178	47.5
	여학생	197	52.5
학년	1학년	118	31.5
	2학년	123	32.8
	3학년	134	35.7
지역	수도권	196	52.3
	비수도권	179	47.7

##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for Window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모든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주요 통 계방법은 기술통계 분석, 내적일치도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H ayes(2013)가 개발한 SPSS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를 활용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연구가설별 통계분석 방법은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

연구 문제	통계분석 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연구 문제 1.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1-1.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1-2.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1-3.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1-4.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t-test, ANOVA
연구 문제 2.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1.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1-1. 중학생의 부모 심리적 지지와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1-2. 중학생의 부모 진로정보제공과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2.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2-1. 중학생의 학교공부와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2-2. 중학생의 학교친구와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2-3. 중학생의 학교교사와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2-4. 중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3.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중다회귀분석
연구 문제 3.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1.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2.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본 연구의 연구 문제별 주요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방법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였다.

둘째, 중학생이 응답한 진로개발역량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위하여 t-test, ANOVA 등을 사용하였다.

셋째, 중학생이 응답한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영향관계 분석을 위하여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분석기준은 Davis(1971)가 제시한 바에 따라 분석하였다(<III-11> 참조).

<표 III-11> 피어슨 상관계수(r)에 대한 상관정도 기준

r	상관정도
1.0	완전한 상관(perfect)
0.7~0.99	매우 높은 상관
0.50~0.69	높은 상관
0.30~0.49	중간 상관
0.10~0.29	낮은 상관
0.01~0.09	매우 낮은 상관

출처: Davis, J. A. (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넷째,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는 매개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10,000개로 설정 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서 Lower값과 Upper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 가.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 분포

##### 1)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응답자들이 인식한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나타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진로개발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4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 반응 범위는 2.20~4.86점이다. 중학생이 인식한 진로개발역량 수준은 평균 3.79점, 표준편차 0.48였다. 응답결과로부터 중학생이 인식한 진로개발역량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 정규성을 위한 왜도와 첨도의 경우 왜도는 절대값 2를, 첨도는 절대값 7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진로개발역량의 왜도는 모두 절대값 1 이하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모두 절대값 2 이하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1>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관한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진로개발역량	3.79	0.489	2.20	4.86	-.138	-.187
자기관리	4.00	0.503	1.65	5.00	-.390	.764
진로정보탐색 및 활용	3.70	0.569	2.00	5.00	-.148	-.462
진로설계 및 관리	3.66	0.604	1.00	5.00	-.364	1.069

##### 2)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 수준

응답자들이 인식한 부모진로지원행동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나타낸 결과는 <표 IV-2>과 같다. 부모진로지원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 반응 범위는 부 진로지원행동은 1.00~5.00점, 모 진로지원행동은 1.14~5.00점이다. 중학생이 인식한 부 진로지원행동 수준은 평균 3.63점, 표준편차 0.71였으며 모 진로지원행동은 평균 3.77점, 표준편차 0.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결과로부터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진로지원행동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원행동의 왜도와 첨도 모두 절대값 1 이하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2〉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에 관한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부·모 진로 지원 행동	부 진로지원행동	3.63	0.716	1.00	5.00	-.474	.320
	부 심리적 지지	3.91	0.722	1.00	5.00	-.807	.752
	부 진로정보제공	3.14	0.834	1.00	5.00	.006	-.236
	모 진로지원행동	3.77	0.647	1.14	5.00	-.464	.255
	모 심리적 지지	4.01	0.650	1.22	5.00	-.772	.650
	모 진로정보제공	3.33	0.780	1.00	5.00	.131	-.246

### 3)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

응답자들이 인식한 학교적응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나타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 반응 범위는 1.66~4.95점이다. 중학생이 인식한 학교적응 수준은 평균 3.90점, 표준편차 0.56였다. 응답결과로부터 중학생이 인식한 학교적응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학교친구, 학교생활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학교적응의 왜도는 모두 절대값 1 이하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모두 절대값 2 이하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3〉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학교적응	3.90	0.565	1.66	4.95	-.419	.368
학교공부	3.74	0.702	1.14	5.00	-.572	.683
학교친구	4.17	0.646	1.40	5.00	-.990	1.201
학교교사	3.65	0.739	1.20	5.00	-.279	-.198
학교생활	4.01	0.611	1.70	5.00	-.549	.332

#### 4)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

응답자들이 인식한 자기효능감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나타낸 결과는 <표 IV-4>과 같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4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 반응 범위는 1.00~5.00점이다. 중학생이 인식한 자기효능감 수준은 평균 3.80점, 표준편차 0.71였다. 응답결과로부터 중학생이 인식한 자기효능감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왜도와 첨도 모두 절대값 1 이하로 나타나 측정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4〉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3.80	0.712	1.00	5.00	-.317	-.056

#### 나.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IV-5>와 같다.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은 진로개발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p < 0.01$ ). 구체적으로는 자기효능감( $r = 0.714$ )이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적응( $r = 0.643$ ), 모 진로지원행동( $r = 0.567$ ), 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 진로지원행동( $r = 0.497$ )은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진로지원행동 및 모 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과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구체적으로는 모 진로지원행동( $r = 0.523$ ), 학교적응( $r = 0.596$ )이 자기효능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부 진로지원행동( $r = 0.489$ )은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부 진로지원행동은 모 진로지원행동과 매우 높은 상관( $r = 0.825$ )을 보였으며 학교적응( $r = 0.495$ ), 자기효능감( $r = 0.489$ )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모 진로지원행동은 학교적응( $r = 0.555$ ), 자기효능감( $r = 0.523$ )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IV-5>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결과

변인	1	2	3	4	5
1. 진로개발역량	1				
2. 부 진로지원행동	.497**	1			
3. 모 진로지원행동	.567**	.825**	1		
4. 학교적응	.643**	.495**	.555**	1	
5. 자기효능감	.714**	.489**	.523**	.596**	1

주1) \* $p < 0.05$ , \*\* $p < 0.01$ , \*\*\* $p < 0.001$

#### 다.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인 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발생하는데,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게 되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독립변인의 변량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진다(최동선, 2003).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으

로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와 VIF가 1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공차한계가 0에 가깝고 VIF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연구에서의 공차한계와 변량팽창계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6>과 같다. 공차한계는 0.977~1.000 변량팽창계수는 1.000~1.024으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연구변인 간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변인	공차한계	변량팽창계수(VIF)
부 진로지원행동	.977	1.024
모 진로지원행동	.998	1.002
학교적응	.984	1.016
자기효능감	1.000	1.000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 차이

###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 1)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진로개발역량 및 그 하위 요인인 진로정보탐색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 실천하는 전반적인 역량이 높으며, 관심있는 직업 또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는 수준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진로개발역량	남학생	178	3.73	0.496	-2.242*
	여학생	197	3.84	0.479	
자기관리	남학생	178	3.98	0.501	-.857
	여학생	197	4.02	0.505	
진로정보탐색 및 활용	남학생	179	3.59	0.586	-3.638***
	여학생	197	3.80	0.536	
진로설계 및 관리	남학생	178	3.64	0.616	-.654
	여학생	197	3.68	0.594	

주) \*p<.05 \*\*p<.01, \*\*\*p<.001.



## 2) 학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수준은 학년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학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진로개발역량	1학년	118	3.82	0.519	.786
	2학년	123	3.74	0.482	
	3학년	134	3.80	0.469	
자기관리	1학년	118	4.01	0.538	.245
	2학년	123	3.97	0.495	
	3학년	134	4.01	0.481	
진로정보탐색 및 활용	1학년	118	3.71	0.581	.686
	2학년	123	3.66	0.582	
	3학년	134	3.74	0.547	
진로설계 및 관리	1학년	118	3.73	0.651	1.575
	2학년	123	3.60	0.586	
	3학년	134	3.67	0.574	

주) \*p<.05, \*\*p<.01, \*\*\*p<.001.

## 3) 지역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

중학생의 지역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9>과 같다.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수준은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지역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진로개발역량	수도권	196	3.78	0.469	-.275
	비수도권	179	3.79	0.512	
자기관리	수도권	196	3.96	0.480	-.1503
	비수도권	179	4.04	0.526	
진로정보탐색 및 활용	수도권	196	3.73	0.539	.835
	비수도권	179	3.68	0.601	
진로설계 및 관리	수도권	196	3.65	0.581	-.615
	비수도권	179	3.68	0.629	

주) \*p<.05 \*\*p<.01, \*\*\*p<.001.

##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차이

### 1) 성별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차이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의 인식 수준의 성별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성별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부 진로지원행동	남학생	178	3.68	0.677	1.265
	여학생	197	3.59	0.747	
부 심리적 지지	남학생	178	3.95	0.659	1.011
	여학생	197	3.87	0.775	
부 진로정보제공	남학생	179	3.20	0.835	1.437
	여학생	197	3.08	0.830	
모 진로지원행동	남학생	178	3.75	0.656	-.336
	여학생	197	3.78	0.641	
모 심리적 지지	남학생	178	3.99	0.639	-.389
	여학생	197	4.02	0.662	
모 진로정보제공	남학생	178	3.32	0.815	-.193
	여학생	197	3.34	0.749	

주) \*p<.05, \*\*p<.01, \*\*\*p<.001.

## 2) 학년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차이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의 인식 수준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학년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부 진로지원행동	1학년	118	3.68	0.615	1.287
	2학년	123	3.68	0.697	
	3학년	134	3.55	0.807	
부 심리적 지지	1학년	118	3.96	0.610	1.493
	2학년	123	3.95	0.708	
	3학년	134	3.82	0.817	
부 진로정보제공	1학년	118	3.17	0.788	.689
	2학년	123	3.18	0.792	
	3학년	134	3.07	0.909	
모 진로지원행동	1학년	118	3.75	0.647	.433
	2학년	123	3.81	0.630	
	3학년	134	3.74	0.666	
모 심리적 지지	1학년	118	4.02	0.640	.921
	2학년	123	4.06	0.634	
	3학년	134	3.95	0.673	
모 진로정보제공	1학년	118	3.27	0.789	.554
	2학년	123	3.37	0.761	
	3학년	134	3.36	0.792	

주) \*p<.05, \*\*p<.01, \*\*\*p<.001.

### 3) 지역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차이

중학생의 지역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2>과 같다.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의 인식 수준의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지역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부 진로지원행동	수도권	196	3.56	0.704	-.243
	비수도권	179	3.72	0.720	
부 심리적 지지	수도권	196	3.84	0.730	-.205
	비수도권	179	3.99	0.707	
부 진로정보제공	수도권	196	3.05	0.791	-.217
	비수도권	179	3.24	0.870	
모 진로지원행동	수도권	196	3.74	0.609	-.881
	비수도권	179	3.80	0.687	
모 심리적 지지	수도권	196	3.98	0.622	-.832
	비수도권	179	4.03	0.680	
모 진로정보제공	수도권	196	3.30	0.733	-.791
	비수도권	179	3.37	0.829	

주) \*p<.05, \*\*p<.01, \*\*\*p<.001.

##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

### 1)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의 성별 차이는 학교 친구, 학교생활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포괄하는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학교적응	남학생	178	3.85	0.573	-1.713
	여학생	197	3.95	0.555	
학교공부	남학생	178	3.71	0.687	-.892
	여학생	197	3.77	0.715	
학교친구	남학생	179	4.09	0.671	-2.318*
	여학생	197	4.24	0.614	
학교교사	남학생	178	3.63	0.719	-.346
	여학생	197	3.66	0.758	
학교생활	남학생	178	3.93	0.605	-2.313*
	여학생	197	4.08	0.610	

주) \*p<.05, \*\*p<.01, \*\*\*p<.001.

## 2)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4〉과 같다. 중학생의 학교적응의 수준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학교적응	1학년	118	3.94	0.578	.462
	2학년	123	3.88	0.535	
	3학년	134	3.88	0.582	
학교공부	1학년	118	3.83	0.679	1.560
	2학년	123	3.73	0.698	
	3학년	134	3.67	0.721	
학교친구	1학년	118	4.12	0.639	.730
	2학년	123	4.16	0.578	
	3학년	134	4.22	0.708	
학교교사	1학년	118	3.67	0.734	.091
	2학년	123	3.63	0.714	
	3학년	134	3.64	0.771	
학교생활	1학년	118	4.12	0.598	2.944
	2학년	123	3.97	0.614	
	3학년	134	3.95	0.612	

주) \*p<.05, \*\*p<.01, \*\*\*p<.001.

### 3) 지역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

중학생의 지역에 따른 학교적응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5〉과 같다. 중학생의 학교적응의 수준은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지역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학교적응	수도권	196	3.86	0.545	-1.562
	비수도권	179	3.95	0.583	
학교공부	수도권	196	3.71	0.681	-.857
	비수도권	179	3.77	0.724	
학교친구	수도권	196	4.14	0.624	-.801
	비수도권	179	4.20	0.669	
학교교사	수도권	196	3.59	0.753	-1.523
	비수도권	179	3.71	0.721	
학교생활	수도권	196	3.95	0.624	-.202
	비수도권	179	4.08	0.592	

주) \*p<.05, \*\*p<.01, \*\*\*p<.001.

## 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 1)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성별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자기효능감	남학생	178	3.81	0.742	.292
	여학생	197	3.79	0.685	

주) \*p<.05, \*\*p<.01, \*\*\*p<.001.



## 2)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학년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자기효능감	1학년	118	3.81	0.736	.051
	2학년	123	3.78	0.746	
	3학년	134	3.80	0.661	

주) \*p<.05, \*\*p<.01, \*\*\*p<.001.

## 3) 지역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중학생의 지역에 따른 자기효능감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지역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지역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자기효능감	수도권	196	3.80	0.707	-.005
	비수도권	179	3.80	0.719	

주) \*p<.05, \*\*p<.01, \*\*\*p<.001.

### 3.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역량의 관계

#### 가.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영향 관계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 학년, 지역을 통제변수로,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회귀분석 결과

변인		종속변인: 진로개발역량					
		모형 1		모형 2		모형 3	
		$\beta$	t	$\beta$	t	$\beta$	t
통제 변인	성별	.115	2.229*	.076	1.988*	.098	2.942**
	학년	-.010	-.201	.017	.453	.003	.081
	지역	.010	.202	-.045	-1.185	-.018	-.551
독립 변인	부 진로 지원행동			.070	1.019	.005	.089
	모 진로 지원행동			.252	3.582***	.175	2.837**
	학교 적응			.466	10.251***	.257	5.856***
	자기효능감					.468	10.943***
R 제곱		.014		.485		.612	
수정된 R 제곱		.006		.477		.604	
F-value		1.694		57.745***		82.577***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독립변인의 투입순서는 통제변인인 성별과 학년, 지역을 1단계에 투입하고,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을 2단계에 투입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을 3단계에 투입하였다.

모형 1에서 통제변인인 일반적 특성만 투입하였을 때 F값은 1.694를 보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모형1의 독립변인에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을 추가하여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57.745, p<0.001$ ), 진로개발역량에 대하여 48.5%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beta$ 값을 비교한 결과 학교적응( $\beta=.466, p<0.00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모 진로지원행동( $\beta=.252, p<0.001$ )이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의 변인에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여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82.577, p<0.001$ ), 모형 2에 비해 12.7% 증가된 설명력인 61.2%의 설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beta$ 값을 비교한 결과 자기효능감( $\beta=.468, p<0.00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적응( $\beta=.257, p<0.001$ ), 모 진로지원행동( $\beta=.175, p<0.001$ )이 그 뒤를 이었다. 통제변인들을 포함한 변인 전체의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 $\beta=.468, p<0.001$ ), 학교적응( $\beta=.257, p<0.001$ ), 모 진로지원행동( $\beta=.175, p<0.001$ ), 성별( $\beta=.098, p<0.001$ ) 순으로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진로개발역량에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 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며, 이 중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 하위요인과 진로개발역량의 영향관계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 학년, 지역을 통제변수로, 심리적지지, 진로정보제공,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0>와 같다.

<표 IV-20>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 하위요인과 진로개발역량의 회귀분석 결과

변인		종속변인: 진로개발역량					
		모형 1		모형 2		모형 3	
		$\beta$	t	$\beta$	t	$\beta$	t
통제 변인	성별	.115	2.229*	.080	2.116*	.097	2.880**
	학년	-.010	-.201	.020	.514	-.002	-.047
	지역	.010	.202	-.038	-1.023	-.017	-.523
독립 변인	부 심리적 지지			.067	.745	.079	.986
	부 진로정보제공			.005	.055	-.072	-.935
	모 심리적 지지			.068	.776	.018	.231
	모 진로정보제공			.187	2.291*	.170	2.243*
	학교공부			.323	6.032***	.104	1.982*
	학교친구			.115	2.215*	.076	1.651
	학교교사			.089	1.709	.078	1.680
	학교생활			.048	.942	.063	1.152
	자기효능감					.457	9.939***
R 제곱		.014		.509		.614	
수정된 R 제곱		.006		.494		.602	
F-value		1.694		34.237***		48.070***	

주) \*p<.05, \*\*p<.01, \*\*\*p<.001.

독립변인의 투입순서는 통제변인인 성별과 학년을 1단계에 투입하고, 부·모의 심리적지지, 부·모의 진로정보제공,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을 2단계에 투입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을 3단계에 투입하였다.

모형 1에서 통제변인인 일반적 특성만 투입하였을 때 F값은 1.694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모형1의 독립변인에 부·모의 심리적지지, 부·모의 진로정보제공,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을 추가하여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4.237, p<0.001), 진로개발역량에 대하여 50.9%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beta$ 값을 비교한 결과 학교공부( $\beta=.323$ ,  $p<0.001$ ), 모진로정보제공( $\beta=.187$ ,  $p<0.05$ ), 학교친구( $\beta=.115$ ,  $p<0.05$ )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의 변인에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여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48.070$ ,  $p<0.001$ ), 모형 2에 비해 10.5% 증가된 설명력인 61.4%의 설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beta$ 값을 비교한 결과 자기효능감( $\beta=.457$ ,  $p<0.00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모진로정보제공( $\beta=.170$ ,  $p<0.05$ ), 학교공부( $\beta=.104$ ,  $p<0.05$ ), 성별( $\beta=.097$ ,  $p<0.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들을 포함한 변인 전체의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면 진로개발역량에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자기효능감, 모진로정보제공, 학교공부가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4.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가.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모진로지원행동을 독립변인으로 지정하고, 성별과 학년을 통제변수로 지정하여 단일모형에서의 경로계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간접효과(ab), 직접효과(c'), 총 효과(c)를 산출하였다.

부 진로지원행동을 독립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인으로 지정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1>과 같이 나타났다.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F값은 29.91( $p < 0.001$ )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원행동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4816$ ,  $p < 0.001$ ), 자기효능감을 24.4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에서 F값은 92.83( $p < 0.001$ )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5.7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4224$ ,  $p < 0.001$ ), 부모진로지원행동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421$ ,  $p < 0.001$ ).

<표 IV-21> 부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변인		종속변인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역량		
		coeff	LLCI	ULCI	coeff	LLCI	ULCI
통제 변인	성별	.0274	-.0996	.1543	.1358***	.0688	.2027
	학년	.0308	-.0466	.1082	.0024	-.0395	.0432
	지역	-.0818	-.2093	.0457	-.0139	-.0813	.0535
독립 변인	부 진로지원행동	.4816***	.4078	.5867	.1421** *	.0805	.1963
매개 변인	자기효능감				.4224***	.3889	.4763
$R^2$		.2444			.5571		
F		29.91***			92.83***		

주) \*p<.05, \*\*p<.01, \*\*\*p<.001.

이와 함께 중학생이 인식한 부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 진로지원행동의 총효과(B=.3521, t=1.46)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B=.1421, t=5.15) 역시 유의한 값을 보였다. 부 진로지원행동이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LL 95% of CI=.16, UL 95% of CI=.25)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 진로지원행동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2> 참조).

〈표 IV-22〉 부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유의수준

Effect	Effectiveness factor	SE	t	95%	
				LLCI	ULCI
총효과	.3521	.0307	11.46***	.2917	.4125
직접효과	.1421	.0276	5.15***	.0878	.1963
간접효과	.2100	Boot SE		.1650	.2596
		.0240			

주) \*p<.05, \*\*p<.01, \*\*\*p<.001.

모 진로지원행동을 독립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인으로 지정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3>과 같이 나타났다. 중학생이 인식한 모 진로지원행동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F값은 34.99(p<0.001)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진로지원행동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5766$ , p<0.001), 자기효능감을 27.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에서 F값은 99.968(p<0.001)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7.5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4172$ , p<0.001), 모 진로지원행동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940$ , p<0.001).



〈표 IV-23〉 모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변인		종속변인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역량		
		coeff	LLCI	ULCI	coeff	LLCI	ULCI
통제 변인	성별	-.0335	-.1577	.0906	.1171***	.0517	.1826
	학년	.0050	-.0706	.0807	-.0047	-.0446	.0352
	지역	-.0325	-.1567	.0917	-.0018	-.0672	.0637
독립 변인	모 진로지원행동	.5766***	.4807	.6724	.1940** *	.1395	.2582
매개 변인	자기효능감				.4172***	.3437	.4514
$R^2$		.2745			.5753		
F		34.99***			99.968***		

주) \*p<.05, \*\*\*p<.01, \*\*\*\*p<.001.

이와 함께 중학생이 인식한 모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 진로지원행동의 총효과(B=.4281, t=13.3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B=.1989, t=6.59) 역시 유의한 값을 보였다. 모 진로지원행동이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LL 95% of CI=.18, UL 95% of CI=.28)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모 진로지원행동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4〉 참조).

〈표 IV-24〉 모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유의수준

Effect	Effectiveness factor	SE	t	95%	
				LLCI	ULCI
총효과	.4281	.0322	13.31***	.3648	.4913
직접효과	.1989	.0302	6.59***	.1395	.2582
간접효과	.2292	Boot SE		.1813	.2833
		.0262			

주) \*p<.05, \*\*p<.01, \*\*\*p<.001.

#### 나.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교적응을 독립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인으로 지정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5〉과 같이 나타났다.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F값은 52.74(p<0.001)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652, p<0.001), 자기효능감을 36.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에서 F값은 106.78(p<0.001)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9.1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587, p<0.001), 학교적응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814, p<0.001).

〈표 IV-25〉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변인		종속변인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역량		
		coeff	LLCI	ULCI	coeff	LLCI	ULCI
통제변인	성별	-.0960	-.2127	.0207	.0930**	.0284	.1577
	학년	.0229	-.0481	.0938	.0020	-.0372	.0412
	지역	-.0657	-.1823	.0509	-.0147	-.0791	.0498
독립변인	학교적응	.7652***	.6516	.8689	.2814** *	.2097	.3530
매개변인	자기효능감				.3587***	.3022	.4151
$R^2$		.3632			.5913		
F		52.74***			106.78***		

주) \*p<.05, \*\*p<.01, \*\*\*p<.001.

이와 함께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교적응의 총효과(B=.5559, t=16.04)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B=.2814, t=7.72) 역시 유의한 값을 보였다. 학교적응이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LL 95% of CI=.21, UL 95% of CI=.34)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6〉 참조).

〈표 IV-26〉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유의수준

Effect	Effectiveness factor	SE	t	95%	
				LLCI	ULCI
총효과	.5559	.0346	16.04***	.4877	.6240
직접효과	.2814	.0364	7.72***	.2097	.3530
간접효과	.2745	Boot SE		.2118	.3462
		.0341			

주) \*p<.05, \*\*p<.01, \*\*\*p<.001.

## 5. 논의

### 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진로개발역량의 평균 점수는 3.79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자기관리는 4.00점, 진로정보탐색 및 활용은 3.70점, 진로설계 및 관리는 3.66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원행동 중 부 진로지원행동의 평균은 3.63점, 하위요인인 부 심리적 지지는 3.91점, 부 진로정보제공은 3.14점으로 나타났다. 모 진로지원행동의 평균은 3.77점, 하위요인인 모 심리적 지지는 4.01점, 모 진로정보제공은 3.33점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평균은 3.90점, 하위요인인 학교공부는 3.74점, 학교친구는 4.17점, 학교교사는 3.65점, 학교생활은 4.01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3.8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 논의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응답자인 중학생은 진로개발역량에 대하여 보통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혜림, 김선희(2018)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평균은 3.91점을 보였고, 장현진(2018)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3.92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한상근 외, 2019)에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평균은 4.02점으로 나타나 진로개발역량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로개발역량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추진되고 진로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환경적 조건들도 갖추어지면서 학교 진로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진로정보 제공 및 상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응답자인 중학생은 부모진로지원행동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요소로서 부 심리적 지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부

진로정보제공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모 심리적지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모 진로정보제공은 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주(2017)의 연구에서도 부모 심리적지지는 3.78점, 진로정보제공은 3.04점으로 나타나 심리적 지지의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진로정보제공의 수준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인 중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진로정보제공을 심리적 지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응답자인 중학생은 자신의 학교적응 수준을 보통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소 중 학교공부, 학교교사에 비하여 학교친구, 학교생활에 있어 적응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지은(2015)의 연구에서 중학생 학교적응은 평균이 3.80점, 하위요소에서 학교공부가 3.67점, 학교친구가 4.05점, 학교교사가 3.75점, 학교생활이 3.70점을 나타냈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들이 자신이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학교친구와의 관계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중학생의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 친구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친구와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느낄수록 학교생활에서의 자신감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해지는 중학생에게 있어 긍정적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응답자인 중학생은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보통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성(2013)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평균 3.28점, 김혜경(2014)이 연구에서 평균 3.23점으로 나타났으며, 남연주(2017)의 연구에서 평균 3.37점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을 보통보다 약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하여 자기효능감 수준을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인 중학생은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주어진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보통보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구명을 위해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 논의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진로개발역량의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성숙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재호, 2006; 전화숙, 임혜정, 이기혜, 2016; 한귀녀, 유순화, 송현아, 2009; 홍향연, 유태명, 2008)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김희수, 김옥희(2007)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진로성숙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은희(201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성별은 초기 청소년 시기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며(이영광, 2020),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등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관련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학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발달 및 성숙의 수준이 높아진다는(김재호, 2006; 서정선, 2002; 어윤경, 2008)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 및 진로개발역량의 수준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이은정, 장윤옥, 2008; 최은희, 2015)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제한됨에 따라 설문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년제 선택프로그램 등 다수의 진로관련 수업이 원격수업으

로 이루어졌으며, 3학년 학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진로교과수업, 자유학기제 등을 통한 다양한 진로교육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는 시기이므로 진로에 대한 관심과 계획의 정도가 중학교 1, 2학년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년에 따른 진로발달 및 진로개발역량의 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로발달 및 성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지능의 영향(김충기, 김현옥, 1989), 학업성적의 영향(김이선, 2006; 김정미, 2007; 김재호, 2006; 이송미, 2005)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동질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에 따른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로개발역량의 측정 도구에 의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각 문항별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일부 문항에서 학년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문항 2-5(“나는 관심있는 직업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정보를 얻는다.”)에 대하여 학년별 평균이 1학년 3.33점, 2학년 2.96점, 3학년 2.90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F=5.620, p<0.01$ ) 차이를 보였다. 문항 3-11(“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견딜 자신이 있다.”)의 응답에서 학년별 평균이 1학년 3.65점, 2학년 3.15점, 3학년 3.4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F=6.338,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일부 문항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때문에 진로개발역량 전체 영역에 있어 학년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달달 및 진로성숙 수준에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선행연구(손정미, 권경인, 2010; 조한범, 이경일, 김미향, 1999)의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진로발달의 도·농간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김재호, 2006; 김종운, 2006; 오정아, 정윤태, 2015)는 도시지



역과 농촌지역의 청소년에 있어 진로발달의 수준과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학교를 임의표집하였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대전, 세종, 대구 등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표집이 이루어져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도시의 경우 수도권 지역과 가정과 학교 환경 및 분위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친구, 학교생활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한다고 본 연구(이혜령, 2000; 정선미, 2008; 정유진, 1999; 주현정, 1998)를 지지하는 결과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에서 친구관계를 잘 맺고 있고, 학교의 규칙이나 일정 등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학교환경에 적극적인 태도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성별에 따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 학생들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문화 구축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 다.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학년, 지역을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 진로지원행동, 모 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을 투입하였을 때 모 진로지원행동( $\beta=.252$ ,  $p<0.001$ )과 학교적응( $\beta=.466$ ,  $p<0.001$ )만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자기효능감( $\beta=.468$ ,  $p<0.001$ )이 진로개발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학교적응( $\beta=.257$ ,  $p<0.001$ ), 모 진로지원행동( $\beta=.175$ ,  $p<0.01$ )이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의 하위요인인 부 심리적지지, 부 진로정보제공, 모 심리적지지,

모 진로정보제공,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을 투입하였을 때 모 진로정보제공( $\beta=.187$ ,  $p<0.05$ ), 학교공부( $\beta=.323$ ,  $p<0.001$ ), 학교친구( $\beta=.115$ ,  $p<0.05$ )만이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자기효능감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자기효능감( $\beta=.457$ ,  $p<0.00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모 진로정보제공( $\beta=.170$ ,  $p<0.05$ ), 학교공부( $\beta=.104$ ,  $p<0.05$ )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논의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진로지원행동 중 어머니의 진로지원행동, 특히 어머니로부터의 진로정보제공이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이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진로개발역량에 정적이 영향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공윤정, 2008; 곽미숙, 2015; 서진희, 2009; 이현미, 정제영, 2017; 최미옥, 2015)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함께 부모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소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Keller, Whiston, 2008; 오석영, 2012)는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직접적인 진로정보제공보다 자녀의 진로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지지에 비하여 진로정보제공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이현미, 정제영(2017)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 중 합리적 설명은 직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결과와 이은정, 장윤옥(2008)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은 자녀의 진로성숙 수준을 높인다고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경우 진로정보제공에 대한 문항이 구체적이고, 전체 문항에서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진로정보제공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척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응답자인 중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진로와 관련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때 진로개발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중 어머니의 진로정보제공 역할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보다 긴 중학생에게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적응의 수준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은 진로발달 및 개발에 대한 영향을 구명한 선행연구(김영란, 하정, 2015; 오정아, 정운태, 2015; 인효연, 2020; 정주원, 2014)를 지지한다. 오정아, 남부현(2014)는 학교생활 및 학교수업에 적응을 잘하는 중학생들이 진로준비성과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학교 내 생활과 수업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진로태도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정아, 정운태(2015)의 연구에서도 학교적응 요인이 도시와 농촌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적응 중 학교공부와 학교친구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며, 공부를 하는 것이 가치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학생일수록 진로개발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의 인지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의 진로발달 및 성숙에 대한 영향력을 구명한 선행연구(곽미정, 김태동, 김형모, 2014; 김미숙, 2008; 박완성, 김미숙, 2009; 이성심, 이기형, 2020; 이송미, 2005; 이순정, 2010; 최수정, 2007)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특히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일 또는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대부분 잘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을 때 가정과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진로개발역량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진로개발역량으로, 매개변수를 자기효능감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은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부모의 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지지 및 진로관련행동과 청소년의 진로발달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한 선행연구(김민정, 2018; 김수리, 2004; 서진희, 2009; 장지성,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환경변인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로지원행동은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지적 변인인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동변인인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로지원행동은 직접적으로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자녀의 인지적 변인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나아가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자녀의 진로탐색 및 개발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지원은 학생들의 진로발달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적응과 청소년의 진로발달,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김문정, 2003; 김미숙, 2001; 김초선, 2007; 이성심, 이기형, 2020; 전경련,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학생 스스로 학교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잘 적응할 때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하고자 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생활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중학생의 시기에 학교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업을 가치있게 여기고, 친구와의 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며, 규칙과 질서에 순응하는 등은 중학생에게 있어 기본적인

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은 모두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높이는 선행변수로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함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선행변수 중 자기효능감의 영향이 가장 주요함을 확인함으로써,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에 있어 가정과 학교의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도 중요하지만 학생 개인의 인지적 요인의 영향이 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의 영향을 구명함과 동시에 이들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셋째,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학생으로 2019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교육부, 2019)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 수는 1,294,559명이다. 이 중 수도권에 재학하는 중학생 수는 634,903명이고 비수도권에 재학하는 중학교 학생 수는 659,656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약 1:1.03의 비율을 보인다. 또한 전체 학생 수 1,294,559명 중 여학생 수가 623,115명임을 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1:0.93임을 알 수 있다. 불성실응답과 지역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수도권 210명, 비수도권 210명의 총 420명의 표집크기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조사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일부 수정 후 활용하였으며 수정된 도구는 전문가의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진로개발역량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44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자기관리는 .877,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은 .900, 진로설계 및 관리는 .845으로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원행동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부 진로지원행동에서 .944, 부 심리적 지지는 .927, 부 진로정보제공은 .868로 나타났고, 모 진로지원행동은 .931, 모 심리적 지지는 .914, 모 진로정보제공은

.837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48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학교공부는 .854, 학교친구는 .890, 학교교사는 .893, 학교생활은 .861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20로 나타났다.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목표 표집 수 420부 중 불성실응답 설문 45부를 제외한 375부의 설문을 활용하여 최종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Windows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하여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과 성별과 학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 대하여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에 대하여 중학생의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기술적 통계에서 진로개발역량의 평균은 3.79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자기관리는 4.00점, 진로정보탐색 및 활용은 3.70점, 진로설계 및 관리는 3.66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원행동에서 부 진로지원행동의 평균은 3.63점, 부 심리적 지지는 3.91점, 부 진로정보제공은 3.14점으로 나타났으며 모 진로지원행동은 3.77점, 모 심리적 지지는 4.01점, 모 진로정보제공은 3.33점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평균은 3.90점, 하위요인인 학교공부는 3.74점, 학교친구는 4.17점, 학교교사는 3.65점, 학교생활은 4.01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80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성별과 학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정과 ANOVA를 통해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진로개발역량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과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있어서 학교친구, 학교생활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학교의 규칙과 질서에 더 잘 적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은 진로개발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기효능감이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적응, 모 진로지원행동이 높은 정적 상관을, 부 진로지원행동이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진로지원행동 및 모 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과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이 자기효능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부 진로지원행동은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부 진로지원행동은 모 진로지원행동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모 진로지원행동은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변인간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학년, 지역을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 진로지원행동, 모 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을 투입하였을 때 모 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만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학교적응, 모 진로지원행동이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의 하위요인인 부 심리적지지, 부 진로정보제공, 모 심리적지지, 모 진로정보제공,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을 투입하였을 때 모 진로정보제공, 학교공부, 학교친구만이 진

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자기효능감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모 진로정보제공, 학교공부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를 진로개발역량, 독립변수를 부 진로지원행동, 모 진로지원행동, 학교적응으로, 매개변수를 자기효능감으로 설정하고 통제변인으로 성별 및 학년, 지역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가 부 진로지원행동인 경우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 진로지원행동인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이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학교적응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 수준, 자기효능감은 진로개발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인식한 경우 높은 수준의 진로개발역량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진로지원행동을 높게 인식한 중학생의 경우 진로개발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학생들에게 있어 어머니의 영향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로부터 진로정보제공을 받는 것이 진로개발역량

의 함양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진로정보제공 역할이 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중학생들이 현재 부모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심리적지지 외의 진로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환경에서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은 중학생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진로개발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학업에 대하여 가치있게 느끼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며 친구관계와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규칙과 질서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은 진로체험활동 등 교과 이외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학업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학업을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며,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학업과 친구관계에서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학생의 인지적 영역으로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인식하는 중학생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진로개발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일 또는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중학생에게 있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서도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며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둘째,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진로지원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로지원행동은 자녀들의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하여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를 받고, 관심있는 학교나 학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고, 적극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위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을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어진 일을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업,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규칙과 질서 등에 잘 적응하는 것은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돕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생활에서 스스로 학업은 가치있고, 중요하며, 친구와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느끼고, 선생님과 친밀감을 가지며,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며 생활하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한 목표를 성취하고,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에서는 교과활동 외에도 학생들이 학교의 전반적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효능감을 발달시켜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3. 제언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 및 실천을 위한 다음의 제언을 시사한다.

####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학년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 하에 중학교 단계

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학년으로 보다 높은 진로개발역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학년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진로개발역량이 지능 또는 학업성적, 학교급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고, 측정 도구에 있어 학년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학년에 따른 진로 인식 차이 연구, 영향요인의 학년 간 차이에 대한 연구, 진로개발역량 측정 도구의 분석 및 보완 등 이러한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지역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전, 세종,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표집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또는 학교 소재지를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단위 등으로 구분하거나 도·농간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의 지역간 차이에 반영하여 진로개발역량이 낮은 수준을 보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진로지원행동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부모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에 대하여 자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이는 자녀의 인식만을 측정한 것으로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부모의 구체적인 행동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인식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부모진로지원행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차원의 진로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중학생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진로개발역량이 개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개척·설계·준비·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적·비인지적 측면의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생각할 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의 시기에서 역시 강조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각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나. 실천적 제언

첫째, 학교적응에 있어 성별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친구, 학교생활에 있어 여학생에 비하여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교적응의 수준은 직접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의 함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되어야 하며, 교우관계 및 규칙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측면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학교적응 수준을 높임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친구관계를 어려워하는 남학생의 경우 방과후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거나, 남학생의 규칙과 질서 유지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정에서의 진로정보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부모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 중 진로정보제공은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부모를 통한 심리적 지지는 높게 인식한 반면, 진로정보제공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일 수 있다. 또는 자녀의 진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와 흥미검사, 적성검사 결과 등에 대하여 대화하거나 구체적인 학교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진로정보제공을 위한 가정 차원의 적절한

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진로정보제공에 있어 가정의 다양한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쉽게 진로정보에 접근하고, 자녀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의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부모진로지원행동과 학교적응을 통하여 향상됨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입시, 성적 위주의 교육적 환경은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을 낮게 인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학교교육은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적을 중심으로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생활의 전반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기효능감 함양하는데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교과교육 이외의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 진로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또는 가정에서 자기효능감 함양을 위해 부모와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정과 학교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타인을 통해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며, 격려와 칭찬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도록 하는 등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선영. (1996). **아이덴티티 발달수준과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은순. (2008). **초등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상현. (2014).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 (1992). **한국 대한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공윤정. (2008). 부모의지지,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아동의 진로발달의 관계. **한국초등교육학회**, 21(3), 223-242.
- 교육부. (2012).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해설)**.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9). **2019 교육통계연보**. 세종: 교육부.
- 곽미숙. (2015). **부모진로관련행동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미정, 김태동, 김형모. (2014).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적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사회과학연구**, 25(3), 151-174.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16(1), 1-26.
- 권미경. (2019). **자유학년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애, 선혜연, 임중현, 조은주, 류방란, 안혜정, 권희경, 전보미. (2018).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주, 송병국. (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91 - 115.
- 김계현. (1995). 상담 심리학의 최근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6(1), 142-165.
-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 김덕주, 권혁철. (2013). 특성화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부적응적 방어기제 및 만성적 지연행동과 진로미결정수준간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0(3), 587 - 605.
- 김도연.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배, 권중돈. (1998).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김동일, 남지은, 강민철. (2015). 중학생의 대인관계지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학급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6(1), 1-22.
- 김동주. (2017). **부모진로행동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진로성숙도와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정. (2003).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01). **초등학생의 발표불안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0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 (2007). **성격유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적과의 관계:중학생을 대상으로**.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8).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숙. (2007a). **직업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병숙. (2007b). 청소년의 진로솔림 현상에 대한 진로교육의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제24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3-34.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2009). 청소년의 선호 직업 편중 현상과 진로지도의 과제. **진로교육연구**, 22(4), 63-83.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 (2010). **진로상담이론 :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선경. (2017). **청소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소라, 황영준. (2016). 고등학생 진로체험과 프로그램 평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167-190.
- 김수리. (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연, 조희권, 박지선. (2015). 학생부중합전형 도입에 따른 전공선택과 고교진로선택간의 관계. **입학전형연구**, 4, 155-174.
- 김순미. (2009).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 관계 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 유성경, 김봉환. (2005). **청소년용 진로발달 검사개발 :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김양분, 남궁지영, 김정민, 박경호, 임현정. (2016). **2016 한국교육중단연구-한국교육중단연구 (KELS) 2013(IV):조사개요 보고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란. (2015).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하정. (2015).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4), 157-169.
- 김영은. (2014). **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관여와 부모 및 자녀 특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래. (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요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교육연구논총**, 17, 3-37.
- 김유진. (2018). **전환기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부모진로관련행동, 진로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 (2005).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창.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 친밀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2007). **중학생의 부모애착, 갈등적 독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호. (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희. (2019).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1), 111-146.
- 김종운. (2006). 도시와 농촌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직업관 비교 연구. **진로교육연구**, 19(1), 25-38.
- 김지현, 김계현, 유정이, 황매향, 노정란. (2007). **부모를 위한 자녀 진로지도 프로그램 활용가이드**. 서울: 고용정보원.
- 김창환, 엄문영, 박현정, 노지윤, 김기현, 이광현, 박레아, 김종민, 이상돈, 박소연, 박종효, 황혜정. (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I) : 학생역량 지수 개발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초선. (2008). **남·여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희망, 진로의식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직업교육연구**, 8(1), 143-160.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경. (2014).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게임중독 관계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주. (2012).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발달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수. (2007). 청소년의 진로솔림 현상에 대한 학교의 역할에 대한 토론. 한국진로교육학회 제24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3-58.
- 김희수, 김옥희. (2007). 진로성숙의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57-68.
- 남수정. (2011). 고교생의 진로교육의 현황 및 진로교육역량과 관계 연구. 청소년연구, 18(11), 283-304.
- 남연주. (2017).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경호. (2004). ARCS모델기반 자기조정학습 수업전략이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경희. (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147-166.
- 류근관. (2013). 통계학. 서울: 법문사.
- 류제윤, 이유경. (201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9(4), 99-116.
- 문승태. (2004).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심리적 변인이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6(2), 65-82.
- 문은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숙. (2019). 중학생의 진로교육 참여와 만족도가 진로·직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순. (1999). 중학생의 진로의식과 학업성숙도,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 1-27.

- 박완성. (2007). 청소년의 진로쫄림 현상에 대한 학교의 역할에 대한 토의. **한국진로교육학회 제24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9-52.
- 박완성, 김미숙.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경. (201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 역량 개발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림, 김선희. (201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6(3), 27-40.
- 배한샘. (2017).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우석. (1994).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선. (2002).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 및 가정배경변인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진희. (2009). **부모진로행동이 중학생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진희, 이제경. (2009). 부모진로행동이 중학생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153-2167.
- 선헤연. (2007). **청소년기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의 관여 방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선헤연. (2009).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파주: 한국학술정보.

- 손정미, 권경인. (2010). 형제 유·무와 중학생의 진로성숙 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비교. **교육치료연구**, 2(2), 33-48.
- 송민정. (2015).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란. (2007).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윤아. (2010).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송유진. (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공감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성용. (2006).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희, 오정아, 조오숙. (2017). 중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과 진로성숙도 향상 효과.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4), 67-92.
- 양현주, 연구진.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관련 부·모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3(1), 199-227.
- 어윤경. (2008).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성숙수준 변화 다층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23-41.
- 오미섭. (2013). 부모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경화.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한·중 대학생의 생활만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석영. (2012). 중학생의 관계형성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경험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4), 23-41.



- 오정아, 남부현. (2014).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1(2), 185-209.
- 오정아, 정윤태. (2015).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도·농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9), 49-77.
- 우영진. (2011).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포부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윤희. (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선. (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행동과 정서지능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진이. (2018).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서울: 양서원.
- 유현심. (2013). **진로지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진로지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자녀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인진. (2000).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통일논총**, 18(1), 3-32.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7(2), 383-393.
-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5(1), 27-40.
- 이동혁, 신윤정, 이은설, 이효남, 홍셋별, 황매향. (2017).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서울: 서울평론.
- 이미라. (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희. (2012). **고등학생의 진로·직업 역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임. (1999). **대학생의 전공 및 직업선택에 따른 직업적 자기효능감, 성역할 정체감, 사고 유형의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복원. (2008). **청소년의 애착요인 및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길. (2020). **직업훈련에 참여한 일반고특화과정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무. (2016). **고등학생들의 부모진로행동,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무, 박관성. (2019).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 부모진로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9), 269-297.
- 이상희. (2009).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0(3), 1539-1553.
- 이성심, 이기형. (2020). **고등학생의 부모지지, 교사관계, 진로교육활동만족도,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역량의 구조관계 분석**. **숭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 10(3), 53-77.
- 이소현. (2018).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글쓰기 연구**. **언어와 문학**, 14(1), 217-241.
- 이송미. (2005).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아효능감의 관계**.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정. (2010).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양희. (2018). **중학생의 진로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 차이**.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광. (2019).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부-모 자녀 진로의사결정 관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부-모 자녀 의사소통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광. (2020). **중학생 진로개발역량과 부모 진로 모니터링 및 부모-자녀 진로 일치**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33(2), 23-47.
- 이영광, 양인준, 이승엽. (2019).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4), 101-126.
- 이영대, 임 언, 이지연, 최동선, 김나라 (2004).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 서울: 교육부.
- 이영미. (2011). **유아의 일상생활, 자녀양육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희. (2013). **청소년 진로·직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 (2014). **부모기대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교사-학생관계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의 중다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 장윤옥. (2008).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55-376.
- 이정아. (200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선. (2011).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북교육연구**, 16, 179-197.
- 이재우. (2019). **초등학생의 부모진로행동과 부모애착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1). **고등교육단계에서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2007). 청소년의 진로개발 성과모형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129-150.
- 이지연, 이영대,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석민, 정영근, 남미숙, 이진남. (2009).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II)**.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은. (2015).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2002). 역량 중심의 대학생 진로개발전략 모색. **상담학연구**, 3(2), 419-438..
- 이현림, 송재영. (200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393-407.
- 이현미, 정제영. (2017).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정기 종단연구(GEPS)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2), 117-139.

- 이현웅. (2014). 국내외 HRD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HRD연구**, 16(3), 225 - 249.
- 이현주. (2010).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진로행동유형 및 애착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효과. **진로교육연구**, 23(4), 151 - 171.
- 이형실. (2015).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7(4), 109 - 119.
- 이혜령. (2000).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훈영. (2012).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청람.
- 인효연. (2020). 중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예측요인. **상담학연구**, 21(2), 35-58.
- 임언. (2008). **역량중심 교과통합 진로교육 위한 탐색**.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최동선. (2006). **진로교육의 과제: 통합적 파트너십 구축(I)**.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효신. (201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명희, 김선태, 박윤희, 최동선.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 **진로성숙도검사 표준화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장지성.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현진. (2018).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31(1), 21-42.

- 장현진, 김민경, 류지영, 윤수린, 유미애. (2015). **2015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현진, 류지영. (2016).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과 영향요인. **The HRD Review**, 19(3), 22-36.
- 전경련. (2013). **특성화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긍정적 사고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미리. (2017).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모형에 따른 부모지지와 대학생의 성격 요인 및 진로탐색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현정, 정혜원. (2018).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 특성 변인 및 학생 특성 변인과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3), 213-240.
- 전화숙, 임혜정, 이기혜. (2016). 서울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6(4), 97-124.
- 정규석. (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1), 235-252.
- 정미나, 노자은. (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정미나, 임영식. (201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6(4), 65-84.
- 정민교. (2011).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미. (200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학교생활 부적응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운정. (2010). **대학생의 가족지지, 진로정체감, 진로신념과의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 (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변인. **한국사회학회논문지**, 2005(1), 259-305.
- 정은진, 정윤경, 김나라, 류지영, 김재희, 장현진.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은주. (2005). **초등학교고학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란. (2006). **부모기대 관련변인과 유아발달과의 관계 : P-P-C모형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주원. (201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6(1), 101-118.
- 정철영. (2011).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과교육연구**, 17(4), 1-30.
- 정철영, 정진철, 이종범, 정동열, 임효신, 이서정, 임정훈. (2015). 우리나라 진로 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진로교육연구**, 28(3), 155-171.
- 조미형, 최상미, 엄태영. (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 친구, 교사애착과 학교생활 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 81-97.
- 조아라. (2013). **한국판 부모진로관련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 **한국심리학회지**, 10(3), 389-408.
- 조영아, 정철영. (2013).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준비행동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53-77.

- 조한범, 이경일, 김미향. (1999). 여가 레크레이션/여가 활동 참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38(4), 950-959.
- 조형숙, 김선월, 김지혜, 김민정, 김남연. (2014). **유아발달**. 서울: 학지사.
- 조혜은. (201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 지지,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인중. (2010).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성취기준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현정. (1998).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경진. (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행동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미석. (2013).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The HRD Review**, 16(1), 50-63.
- 진미석, 손유미. (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손유미, 김도협. (2012). **주요국의 진로교육정책**.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윤희한. (2004). **성인대상 진로개발 지원인력의 양성·활용실태와 개선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성희, 성은모.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30(1), 67-90.
- 진성희, 성은모, 최창욱. (201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3), 195-220.



-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진로교사의 지원,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진로교육연구**, 26(4), 25-47.
- 차유림. (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아롱. (2014).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과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추희선. (2014).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부모진로관련행동, 진로성숙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 (2008). **진로교육정책의 성과와 추진 방향**.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 윤형환, 정철영, 서우석, 허종렬. (2005).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지침 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연구: 초,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교육부.
- 최동선, 한상근, 임언, 정윤경, 이상준, 김나라. (2008).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와 추진방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미옥. (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관련행동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지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효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경. (201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진로기대가 진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매개효과와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정. (2007). **중등단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과 진로성숙변화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변화모형**. **한국청소년연구**, 18(3), 31-57.

- 최은희. (2015).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307-316.
- 최이선. (2008). 부모기대지각,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2010). **2009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희. (2019).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와 영향요인 탐색. **한국교육**, 46(1), 161-186.
- 최정우. (2015). 부모참여 진료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부모의 진로지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최희옥, 문재우, 박재산. (2005). 가족내 갈등과 학교부적응간의 관련성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17, 79-106.
- 최효순. (2001). 초기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환경 및 개인변인과의 인과 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귀녀, 유순화, 송현아. (2009). 진로장애와 진로포부가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7(3), 211-235.
- 한상근. (2009). **창의적 커리어 패스 형성에 관한 기초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상근, 진미석, 이영대, 임언, 이지연, 이양구, 정윤경. (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상근, 김민경, 안유진, 안중석, 김다래.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허경철. (1991). Bandura의 자기효능감 발달이론과 자주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한국교육**, 18, 67-84.
- 홍향연, 유태명. (2008).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자아정체감을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3), 49-64.
- 황경미. (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 관계와 학교 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2010). 한국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특성의 변화추이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4), 75-9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US: Prentice-Hall, Inc.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mathematics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the selection of science-based college maj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3), 329-345.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ierman, N. L.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s theory. *Annals of Child Development, 6*, 187-24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CA: Sage.
- Chen. G., Stenley. M. G. & Eden. D.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 efficacy scale. *Organig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 Constantine, M. G., Wallace, B. C., & Kindaichi, M. M. (2005). Examining contextual factors in the career decision status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307 - 319.
- Crites, J. O. (1971). *The Maturity of Vocational Attitude in Adolescence*. Washington, D. C. : American Personnel Guidance Association.
- Crites, J. O. (1974). Major Contribution Career Counseling: A Review of Major Approach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3), 3-23.

- Danielsen, L. M., Lorem, A. E., & Kroger, J. (2000). The impact of social context on the identity-formation process of Norwegian late adolescents. *Youth & Society, 31*, 332 - 362.
- Davis, J. A. (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109-119.
- Eden, D. (2001). *Means efficacy: External sources of general and specific subjective efficac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allathy, I. R., & Meyer, J. P. (1992). The effects of goal difficulty on physiological arousal, cognition and task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694-704.
- Gardner, D. G., & Pierce, J. L. (1998).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in the organizational context. *Group and Organization Management, 23*, 48-70.
- Ginzberg, E. (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A restat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 169-176.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ice: An Approach to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ushue, G. V., & Whitson, M. L. (2006). The relationship among support, ethnic ident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 112 - 124.

- Hackett, G.,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385-419.
- Hirschi, A., Niles, S. G., & Akos, P. (2011). Engagement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the development of choice decidedness and congruence. *Journal of adolescence*, *34*(1), 13-182.
- Hoy, W. K., & Sweetland, S. R. (2001). Designing Better School: The Meaning and Measure of Enabling School Structur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37*, 296-321.
-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198-217.
- Kracke, B., & Schmitt-Rodermund, E. (2001).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in the context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transitions*. In *Navigating Through Adolescence: European Perspectives*, J. E. Nurmi(Ed.), New York:Garland.
- Kreicie, R. V., & Morgan, D. W. (1970).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607-610.

- Kroger, J. (2007). *Identity development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Krumboltz, J. D., Mitchell, A. M., & Jones, G. B. (1976).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sele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1), 71-81.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8.
- Latham, G. P. & Locke, E. 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212-247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 - 568.
- Lent, R. W., Brown, S. D.,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ynch, M., & Cicchetti, D. (1997).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81-99.

- Ma, N., Kim, Y., & Ahn, D.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self-determin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China. *Poster presentation at the 3rd China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ositive Psychology, 3(6)*, Beijing, China.
- OECD. (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Bridging the gap*. Paris: OECD.
- Otto, L. B. (2000). Youth perspectives on parental career influe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 111-118.
- Pearson, S. M. & Bieschke, K. J. (2001). Succeeding against the odds: An examination of familial influences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professional African American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301-309.
- Phillips, Bluestein, Jobin-Davis, & White(2002). Preparation for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e View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2)*, 202-216.
- Porfeli, E. J., Lee, B., & Vondracek, F. W. (2013). *Identity development and careers in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In W. B. Walsh, M. L. Savickas, & P. Hartung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NY: Routledge Press.
- Reddy, R., Rhodes, J. E., & Mulhall, P. (2003). The influence of teacher support on student adjustment in the middle school years: A latent growth curve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1)*, 119-138.



- Rogers, M. E., Creed, P. A. & Praova, A. (2018). Parent and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tasks and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5*, 34-49.
- Rogers, M. E., Creed, P. A., & Glendon, A. I.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 132 - 142.
- Savickas, M. L. (2002). Career construction. In D. Brown & Associate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chunk, D. H. (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y, 19*, 48-58.
- Sharf, R. S. (200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4th*. CA: Thomson.
- Shartland, A., Kreider, H., & Erickson-Warfield, M. (1994). *Preparing teachers to involve parents: A national survey of teacher education programs*. Cambridge, MA: Harvard Family Research.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korikov, V. B., & Vondracek, F. W. (2011). Occupational identity.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Springer.
- Spencer, L., & Spencer, S.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Y: John Wiley and Sons, Inc.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s*, 30, 88-92.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ie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uckman, B. W. (1974). An age-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93-212.
- Turner, S., Norman, E., & Zunz, S. (1995). Enhancing resiliency in girls and boys: A case for gender specific adolescent prevention programming.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6(1), 25-38.
- Turner, S. L., Annette, A. Lapan, R. T., Udipi, S., Ergun, Damla.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 Evaluation in Counseling & Development*, 36, 83-94.
- Turner S. L. , Trotter M. J., Lapan R. T., Czajka K. A., Yang, P., Brissett E. A. (2006). Vocational Skills and Outcomes Among Native American Adolescents: A Test of the Integrative Contextual Model of Career Develop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3), 216-226.
- NCDA. (1989).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 Niles, S. G., & Harris-Bowlsbey, J. (2009). *Career development interventions in the 21st century(3thed.)*. NJ: Pearson Education.

-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y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Vieno, A., Santinello, M., Pastore, M., & Perkins, D. D. (2007).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in school, and self-efficacy as resources during early adolescence: an integrative mod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 177-190.
- Wood, R. E., Mento, A. J., & Loke, E. A. (1987). Task complexity as a moderator of goal effect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3), 416-425.

## 【부록 1】 질문지

### 설문지(학생용)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이 부모님의 진로지원행동과 학교에서의 적응이 여러분의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 결과는 중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분야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9쪽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15분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문항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 또는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에 체크하면 됩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사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정성이 담긴 응답은 본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요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김 유 리

지도교수 정 철 영

1. 다음은 자기 관리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주변 사람들(가족, 선생님, 친구 등)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만의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잘 하는 일과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과 싫어하는 직업을 구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능력(언어능력, 수리·논리력, 음악능력, 신체·운동능력 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특성과 잘 맞는 직업 또는 직업의 특성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표현(칭찬, 감사, 존중 등)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를 기울여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변 사람들(가족, 선생님, 친구 등)로부터 진로(직업, 진학 등)에 관한 정보를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책, 신문, 잡지 등의 자료를 통해 진로정보를 찾아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진로정보를 찾아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진로상담을 통해 모르거나 궁금한 진로정보를 찾아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관심 있는 직업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찾아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희망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정보(하는 일, 자격요건, 근무환경 등)를 찾아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나의 희망 직업과 관련 있는 진학정보(학교 및 전공 등)를 찾아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10-20년 후에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겨날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10-2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느 학교에 진학하여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직업을 통해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직업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성별, 인종, 문화 등에 상관없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미래 직업생활에서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근무시간, 복장, 도덕적 원칙 등)을 지킬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미래 직업생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미래 직업생활에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진로설계 및 관리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진로와 직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특성(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과 관심 있는 직업의 특성(하는 일, 자격요건, 근무환경 등)을 비교하여 진로선택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진로목표(고교 및 대학 진학, 희망직업 진출 등) 달성을 위한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나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스스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좋아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과목도 열심히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직업인으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진로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 및 두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견딜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진로계획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적응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부모진로지원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번호	문항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내게 특정 진로(진학, 직업)에 대한 자료를 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어떤 진로(진학, 직업)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특정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대한 자료를 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내가 어떤 학교(고등학교, 대학교)나 직업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 지지해 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여러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내가 진로계획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내가 특정 진로(진학, 직업)에 진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도서관이나 서점 등에 가면 진로(진학,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나의 생각, 감정,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아버지					번호	문항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은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줍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은 진로(학교, 직업)설명회에 나와 함께 참여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은 내가 교과 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도록 권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은 내가 받은 진로검사나 흥미검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은 나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9	부모님은 내가 진로선택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염려할 때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0	부모님은 학교에서 하는 진로관련검사(흥미검사, 적성검사 등)를 받아보라고 권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대들의 관심사에 흥미를 보이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2	부모님은 나에게 특정 진로(진학,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3	부모님은 숙제나 공부를 도와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4	부모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진학, 직업)가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5	부모님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6	부모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기대가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7	부모님은 선생님(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진로진학상담선생님 등)과 나의 진로에 대해 상담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8	부모님은 내가 다양한 진로(진학, 직업)를 고려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줍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학교생활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에게는 고민을 나눌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들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화장실이나 수도 등 학교시설을 아껴서 사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요즘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모둠활동을 통해 협조를 잘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선생님들은 배울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들은 대체로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6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잘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나는 우리학교의 특별한 행사(소풍,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학교공부는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커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학교 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마음 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학교 안에서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하던 공부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9	우리 반 친구가 학습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함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학교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노력만 하면 지금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	나는 반 친구가 이야기 할 때 잘 귀담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6	우리 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주변활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보,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어진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도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8. 귀하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_\_\_\_\_)학년

- 감사 합니다 -

【부록 2】 조사 도구 수정

1. 부모진로지원행동 도구 수정(안) 및 전문가 검토의견

문항 번호	문항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진희, 이제경(2009)</li> <li>Keller, Whiston(2008)</li> </ul>	연구자 수정(안)	검토의견	최종 수정
심리적 지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님은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li> <li>My parent tells me he or she is proud of m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 의견) ‘말씀하신다’ 정도 외에 종합적으로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정도로 넓게 가는 것 고려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님은 어떤 직업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응원해주시니다.</li> <li>My parent encourages me to choose whatever career I wa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수정(안))부모님은 어떤 진로(학교, 직업)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용기를 주신다.</li> <li>(2차 수정(안))부모님은 어떤 진로(진학, 직업)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용기를 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 의견) ‘부모님은 어떤 진로(진학, 직업)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신다.’ 정도로 ‘응원’ 보다는 구체적 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수정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님은 어떤 진로(진학, 직업)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신다.</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님은 내가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다고 말할 때 지지해 주신다.</li> <li>My parent has supported me when I have told him or her that I am interested in a specific care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님은 내가 어떤 학교(고등학교, 대학교)나 직업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 지지해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학교(고등학교, 대학교)나 직업에 대해 지지해 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님은 내가 어떤 학교(고등학교, 대학교)나 직업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 지지해주신다.</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li> <li>My parent tells me he or she loves m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내 진로계획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다.</li> <li>• My parent encourages me to talk to him or her about my career pla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나의 진로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진로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li>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나의 진로계획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잘 들어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진로계획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다.</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앞으로 되었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li> <li>• My parent has one career in mind for me and expects me to enter i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수정(안))부모님은 나의 미래 진로(학교, 직업)를 한 가지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신다.</li> <li>• (2차 수정(안))부모님은 나의 미래 진로(진학, 직업)를 한 가지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특정 진로(진학, 직업)로 진출하기를 기대하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특정 진로(진학, 직업)에 진출하기를 기대하신다.</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다.</li> <li>• My parent encourages me to make my own decisio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 해주신다.</li> <li>• (남○○ 의견)(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 해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다.</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나의 생각, 감정,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li> <li>• My parent really tries to understand my thoughts, feelings, and opinions about various topic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나의 생각, 감정,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나의 생각, 감정,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씀하십니다.</li> <li>• My parent tells me he or she is very satisfied with his or her own lif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씀하십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씀하십니다.</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나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해보라고 응원해 주십니다.</li> <li>• My parent encourages me to try new thing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수정(안))부모님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도록 용기를 주십니다.</li> <li>• (2차 수정(안))부모님은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도록 용기를 주십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li>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도록 격려해 주십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교과 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하십니다.</li> <li>• My parent has encouraged me to be involved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수정(안))부모님은 내가 교과 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도록 격려하십니다.</li> <li>• (2차 수정(안))부모님은 내가 교과 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도록 용기를 주십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교과 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도록 격려하십니다.</li>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교과 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십니다.’</li>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교과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교과 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도록 권하십니다.</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받은 진로검사나 흥미검사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 주십니다.</li> <li>• My parent has helped me understand the results from career tests or interest assessments I have take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진로관련 검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li> <li>• (남○○ 의견) 부모님은 진로검사나 흥미검사를 잘 모를 수도 있음.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받은 진로검사나 흥미검사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하십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받은 진로검사나 흥미검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나의 대학교육을 위해 저축을 하신다.</li> <li>• My parent is saving money for my college educ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나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 하신다.</li> <li>• (남○○ 의견) 이 문항은 심리적 지지와 관련이 있을지 의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나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하신다.</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진로선택과 관련된 걱정이나 고민을 말할 때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신다.</li> <li>• My parent helps me feel better when I tell him or her I am worried or concerned about choosing a care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진로선택에 대하여 걱정이나 염려를 할 때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진로선택에 대하여 걱정이나 염려를 할 때 기분이 나아지도록 이야기를 해주신다.’</li>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진로선택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을 할 때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 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진로선택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염려할 때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 주신다.</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10대들의 관심사에 흥미를 보이신다.</li> <li>• My parent expresses interest in various teenage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m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수정(안))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대들의 관심사에 흥미를 보이신다.</li> <li>• (2차 수정(안))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대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대들의 관심사에 흥미를 보이신다.</li> <li>• (임○○ 의견)1차 수정(안)이 나은 것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대들의 관심사에 흥미를 보이신다.</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물어보신다.</li> <li>• My parent asks what careers I am considering for my futur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수정(안))부모님은 내가 미래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진로(학교, 직업)가 무엇인지 물어보신다.</li> <li>• (2차 수정(안))부모님은 내가 미래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진로(진학, 직업)가 무엇인지 물어보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고려하고 있는 진로(진학, 직업)가 무엇인지 물어보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진학, 직업)가 무엇인지 물어보신다.</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단계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신다.</li> <li>• My parent has talked to me about the steps involved in making difficult decisio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수정(안))부모님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단계에 대하여 말씀해주신다.</li> <li>• (2차 수정(안))부모님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단계에 대하여 말씀해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이나 진로의 선택을 고려하도록 용기를 주신다.</li> <li>• My parent has encouraged me to consider many different educational and career optio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교육과 진로 선택에 대하여 고려해보도록 용기를 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교육과 진로선택에 대하여 고려해보도록 기회를 주신다.’</li>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다양한 진로(진학, 직업)를 고려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가 다양한 진로(진학, 직업)를 고려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다.</li> </ul>
진로정보 제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게 특정 직업과 관련된 자료를 주신다.</li> <li>• My parent has given me written material about specific caree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수정(안))부모님은 내게 구체적인 진로(학교, 직업)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li> <li>• (2차 수정(안))부모님은 내게 구체적인 진로(진학, 직업)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진로정보가 담긴 자료를 구해주신다.</li>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게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 주신다.</li> <li>• (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게 특정 진로(진학, 직업)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 또는 부모님은 내게 특정 진로(진학, 직업)에 대한 자료를 주신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게 특정 진로(진학, 직업)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구체적인 대학과 관련된 자료를 주신다.</li> <li>• My parent has given me written material about specific colleg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구체적인 대학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특정 대학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li>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진학(고등학교, 대학교 등) 자료를 구해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특정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하신다.</li> <li>• My parent encourages me to ask questions about different job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여러 직업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권하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여러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하신다.</li>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여러 직업들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여러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도서관이나 서점 등에 가면 어디에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신다.</li> <li>• My parent has shown me where to find information about colleges or careers in the library or bookstor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대학과 진로(진학,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가 진로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li>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진로(진학,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li> <li>• (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대학과 진로(진학,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 또는 부모님은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대학과 진로(진학,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신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도서관이나 서점 등에 가면 진로(진학,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학교, 학원, 관련기관 등에서 하는 진로교육(워크숍)에 나와 함께 참여하신다.</li> <li>• My parent has participated with me in a structured career development workshop offered by my school, church, et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수정(안))부모님은 학교나 관련기관 등에서 하는 진로(학교, 직업)설명회에 나와 함께 참여하신다.</li> <li>• (2차 수정(안))부모님은 학교나 관련기관 등에서 하는 진로(진학, 직업)설명회에 나와 함께 참여하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다양한 기관에서 하는 진로관련 워크숍에 나와 함께 참여해 주신다.</li>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진로(학교, 직업)설명회에 나와 함께 참여하신다.</li> <li>• (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학교나 학원 등에서 하는 진로(진학, 직업)설명회에 나와 함께 참여하신다 또는 부모님은 학교나 학원 등에서 하는 진로(진학, 직업)설명회에 나와 함께 참여하신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진로(학교, 직업)설명회에 나와 함께 참여하신다.</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나에게 흥미검사, 진로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 하신다.</li> <li>• My parent has encouraged me to take interest assessments or career tests offered by my schoo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학교에서 하는 흥미 검사나 진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십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학교에서 하는 흥미검사나 진로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십니다.</li>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내게 학교에서 진로관련 검사(흥미 검사, 적성검사 등)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십니다.</li> <li>• (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학교에서 하는 흥미 검사나 진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십니다 또는 부모님은 학교에서 하는 흥미 검사나 진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신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학교에서 하는 진로관련검사(흥미검사, 적성검사 등)를 받아보라고 권하십니다.</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나에게 구체적인 직업들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li> <li>• My parent tells me about specific caree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수정(안)부모님은 나에게 구체적 진로(학교,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li> <li>• (2차 수정(안)부모님은 나에게 구체적 진로(진학,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특정 진로(진학,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li> <li>• (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나에게 특정 진로(진학,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나에게 특정 진로(진학, 직업)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다.</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 숙제나 공부를 도와 주신다.</li> <li>• My parent helps me with my homework or study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숙제나 공부를 도와 주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 의견) 이 문항은 진로정보 제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숙제나 공부를 도와 주신다.</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내 진로에 대해 기대가 높다고 이야기 하신다.</li> <li>• My parent tells me he or she has high expectations for my care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기대가 높다고 말씀하십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기대하고 계신다</li> <li>• (남○○ 의견) 이 부분은 진로정보 제공이라고 보기 보다는 심리적 지지에 대한 부분이 아닌지 고려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기대가 높다고 말씀하십니다.</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담임선생님(학교상담자)과 대화 하시곤 한다.</li> <li>• My parent has talked to my school counselo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학교상담자(담임교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와 대화하시곤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우리 학교 상담선생님(담임선생님, 진로진학상담교사, 학교상담교사 등)과 나의 진로에 대해 말씀을 나누신다.</li>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선생님(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진로진학상담선생님 등)과 나의 진로에 대해 대화하신다.</li> <li>• (차○○ 의견) (수정 예시) 부모님은 학교상담자(담임교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와 상담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선생님(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진로진학상담선생님)과 나의 진로에 대해 상담하신다.</li> </ul>
기타 추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 의견) 현재완료 시제의 경우 과거의 경험(~한 적이 있다) 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온 활동(~한다)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상황과 문맥상 적합한 해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li> <li>• (임○○ 의견) 국어에서는 ‘~하도록’ 보다 ‘~하게’ 를 권장함.</li> </ul>				

## 2.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 수정(안) 및 전문가 검토의견

문항 번호	• 송윤아(2010)	연구자 수정(안)	검토의견	최종 수정
1	•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 좌동		•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2	•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 나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나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li>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나는 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li> </ul>	• 나는 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
3	•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의견) (수정 예시)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li> <li>• (남○○ 의견) (수정 예시) 나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li> </ul>	•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4	•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 좌동		•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5	• 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보,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나는 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보,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임○○ 의견) (수정 예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보,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보,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 좌동		•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할 자신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해야 하는 일을 더 잘 할 자신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 의견) (수정 예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어진 일을 더 잘할 수 있다.'</li> <li>(임○○ 의견) (수정 예시) 나는 해야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어진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도 일을 잘 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도 해야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 의견) (수정 예시) 나는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도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다.'</li> <li>(임○○ 의견) (수정 예시)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야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도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다.</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 의견) (수정 예시) 나는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li> <li>(남○○ 의견) (수정 예시)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 의견) (수정 예시) 나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다.</li> <li>(남○○ 의견) (수정 예시) 나는 주어진 일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다.</li> </ul>



## Abstract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Parents' Career Support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Yu Ri Kim*

*Dissertation for the Master for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20*

*Major Advisor: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parents' career support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To accomplish the goal, first the level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parents' career support behavior, school adjustment, self-efficacy is evaluat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whether there exists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parents' career support behavior, school adjustment,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gender, grade, region is verified. Second, I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parents' career support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Third, the mediating effect through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parents' career support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is examined.

d.

The instrument was adopted from preceding research and slightly adjusted toward study object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nstruments were identified based on experts' review and pilot survey resul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ostal questionnaire survey from September 28, 2020 to October 23, 2020. The target sample size was 420 and 45 responses containing careless responding were removed. A total of 375 responses were utilized for final analysis. For the analysis, SPSS 26.0 Statistics Program for Windows was utilized and descriptive analysis includ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s well as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bootstrapping were used.

The results of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level of all the variables are above the average. Also, there has been observ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ender, i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school friends and school life. Second, parents' career support behavior, school adjustment and self-efficacy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In addition, as subfactors mothers' offering career information, school study, school friends and self-efficacy have a meaningful positive relationship with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Third,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areer support behavior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lso, it has mediating effect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made. First, Parents' Career Support Behavior, School Adjustment and Self-Efficacy are considered as factors have a direct effect 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self-efficacy showed mediating effect partially between parents' career support behavior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Third, self-efficacy showed mediating effect partially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detailed research 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is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on more effective parental career support behaviors by studying parents and children together on parental career support behavior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by expanding the research subject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 Practical sugges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according to gender in adapting to school.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actical support plans for providing career information at home. Third,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program to cultivate a sense of self-efficacy.

---

Key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Parents' Career Support Behavior, School Adjustment, Self-Efficacy

Student ID: 2011-21195